

護國·先賢遺蹟과 傳統文化 遺蹟의 保存 繼承에 對하여 (호국·선현유적과 전통문화 유적의 보존 계승에 대하여)

文化財一課長 鄭 在 鏞

- | | |
|-----------------|--------------------|
| 1. 머리말 | 4. 傳統文化의 保存과 繼承 |
| 2. 國難克服의 歷史的 遺蹟 | 5. 맺는말 |
| 3. 民族思想의 先賢 遺蹟 | 부록 韓國文化遺産 發掘 調査 年表 |

1. 머리말

1960年代와 1970年代의 문화재관리정책(文化財管理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을 말한다면 호국 선열(護國 先賢)의 유적(遺蹟)을 보수 정화(補修 淨化)하여 국난극복(國難克服)의 민족정신(民族精神)을 확립(確立)하고 전통문화(傳統文化)를 보존(保存) 계승하여 새로운 민족문화(民族文化)를 창조(創造)하는 두가지 큰 명제를 내 세울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각하(朴正熙 大統領閣下)의 지시로 문화정책(文化政策)의 주도적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가 국난극복(國難克服)의 전화유적(戰火遺蹟)과 그 속에 스며있는 보국정신(報國精神)이며 둘째가 민족사상(民族思想)의 선각자(先覺者)로서 학문(學問)사상(思想) 종교(宗教) 등(等)의 주체적 정신문화(主體的 精神文化)의 계발과 창달이다. 셋째는 슬기찬 민족 문화(文化)의 보존과 계승으로 민족문화사(民族文化史)의 주체성(主體性)을 확립하고 세계의 인류문화에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주안점에 있다. 이를 우리는 민족사 정통성(民族史 正統性)의 계승이며 새 역사창조의 터전이라 말한다.

그러나 위의 세가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국난극복(國難克服)의 전화유적(戰火遺蹟)을 보수정화(補修淨化)함에 있어서는 민족(民族)의 저력과 강인한 기상이 넘쳐흐르는 것이며 유적(遺蹟)의 성격상 광역의 지역개발과 연결되어 있다. 민족사상(民族思想)의 선현유적(先賢遺蹟)의 보수(補修)는 그 규모의 크고 우람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현(先賢)이 이룩한 업적이 주가 되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외형적(外形的)인 구조물에 머물러 버릴수가 있다. 여기에 있어서는 외형(外形)의 유적보수(遺蹟補修)도 중요(重要)하지만 진적(典籍)이나 유물(遺物) 및 관계전문학자의 연구정리(研究整理)가 선행(先行)되어야 병행해야 하며 그 결과가 책으로 발간되어 외형(外形)의 구조물(構造物)과 내용(內容)이 동시(同時)에 이룩되어야 한다.

슬기찬 민족문화(民族文化)의 보존(保存)과 창달에 있어서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대별(時代別), 지역별(地域別)로 문화(文化)의 특성(特性)이 다르고 학문적 연구(學問的 研究)의 확실(確實)한 결론에 도달 되었다 하여도 절대적인 결론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사실은 모두가 연구의 과정에 있는 대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존(保存)의 방도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계속적인 조사연구(調查研究)가 요구(要求)된다. 특히 우리는 일제(日帝)의 식민지하(植民地下)에서 일본인(日本人)들에게서 배운 식민지사관(植民地史觀)과 줄기찬 민족사(民族史)의 발전적 문화요소를 찾아낼 줄 모르는 역사의식으로 문화유산(文化遺産)을 보는 경향도 있어 많은 가치(價値)의 정립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아직 일인(日人)들이 써 놓은 많은 유적조사(遺蹟調査)와 유물(遺物)의 연구서(研究書)를 주체적 민족사관(主體的 民族史觀)의 입장에서 학문적으로 냉정히 비판하고 그 오류를 지적하여 우리의 안목으로 모두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은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는 예산(豫算)이 많아지고 사업(事業)이 커지는데 따라 전문가(專門家)의 양(量)과 질(質)이 많고 높아져야 한다. 이것이 동시(同時)에 충족되지 못하면 능력에 겨운 부실이 초래되고 보존이 아니라 훼손이 야기된다. 엄격히 말해서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는 예산(豫算)의 과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專門家)의 량(量)과 질(質)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호국선현(護國先賢)의 유적 보수 정화 사업에 있어서 그 대상선정의 문제가 따르고 민족적(民族的)인 관습에 따라, 조상(祖上) 숭배의 열의(熱意)로 또는 지역적(地域的)인 애향심(愛鄉心)이 발동하여 여러가지 부작용도 일어난다.

무턱대고 크게 만들어야 하고 필요이상(必要以上)의 복원(復原)의 요구(要求)하거나千篇일률적(千篇一律的)으로 같은 형태의 유적지를 조성(造成)하려는 일들이 그것이다. 이제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 호국선현(護國先賢)의 유적보수 정화사업(遺蹟補修 淨化事業)과 전통문화(傳統文化)의 계승 창달사업에 대하여 그 실적(實績)과 계승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2. 국란극복(國亂克服)의 역사적 유적(歷史的 遺蹟)

국난극복(國難克服)의 역사적 유적(歷史的 遺蹟)이란 여기찬 민족(民族)의 강인한 저력과 활달한 기상이 넘쳐흐르고 뜨거운 애국(愛國)의 함성이 울리는 역사(歷史)의 현장(現場)들이다.

우리는 광활한 만주벌을 정벌해 가던 서기 400년대의 고구려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시대를 잊을 수 없다. 연(燕)의 신성 남소성(新城 南蘇城)을 함락하고 선비 흉노(鮮卑 匈奴), 왜(倭)를 쳐서 한국(韓國)역사상 가장 최대(最大) 최강(最強)의 제국(帝國)을 건설(建設)했던 것이다.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의 능(陵)과 능비(陵碑)는 중국 봉천성 집안현 통구(中國 奉天省 輯安縣 通衢)에 남아 있으나, 이는 이미 우리 국토(國土)의 밖이라 보수(補修)도 답사(踏查)도 어렵다. 고구려는 596년 수(隋)나라 30만(萬) 대군(大軍)을 임투관(臨渝關)(요서지방(遼西地方))에서 격멸하고 613년 사나라 양제(煬帝)가 수륙(水陸) 4백만 대군(百萬大軍)으로 고구려를 침략해 올 때 고구려 건무장군(建武將軍)의 수군(水軍)은 수(隋)의 내호아(來護兒)가 지휘하는 10만 수군(水軍)을 패강(溟江)(대동강(大洞江))에서 전멸시켰으며, 고구려 을지문덕(乙支文德)장군의 부대는 수(隋)의 30만 오천(萬五天)의 육군(陸軍)을 살천(薩川)(청천강(淸川江))에서 격멸하여 겨우 2,700명이 살아서 돌아갔으며 오열홀(烏烈忽)에서 수양제(隋煬帝)의 수십만 어영군(御營軍)이 패

(敗)하여 드디어 618년 수(隋)나라는 망하고 말았다.

수(隋)를 이은 당(唐)나라는 645년 당태종(唐太宗)이 20萬 정예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할 때 안시성성주 양만춘(安市城成主 楊萬春)은 80여일(餘日)의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여 당군(唐軍)을 격파하고 당태종(唐太宗)의 눈에 화살을 쏘아 부상을 입혀 퇴각시켰다.

이때는 고구려 연개소문(淵蓋蘇文)장군이 통치하는 시대로 연개소문(淵蓋蘇文)장군의 부대는 현 북경(現 北京) 인접까지 추격전을 전개하여 수많은 당군을 격살했던 것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강인한 기상은 고구려의 기상이며 이러한 유적들이 모두 북한(北韓)과 중국(中國)에 있어 조국분단의 오늘을 더욱 가슴아프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을지문덕(乙支文德), 양만춘(楊萬春), 연개소문 장군(淵蓋蘇文 將軍)의 현장지를 조사(調查) 선택하여 고구려가 외침을 막고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발전하던 강인한 민족(民族)의 정신(精神)을 이어받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연구(調查研究) 및 조성사업(造成事業)이 계획되고 있다.

신라(新羅)는 진흥왕대(眞興王代)를 맞이하여 553년 한강 유역(漢江流域)과 함경도 일대까지 국토를 확장하고 562년 가야(伽倻)를 병합(併合)하여 신라(新羅)의 국력(國力)을 신장하였다. 여기에는 신라고래(新羅古來)로 내려오던 화랑제도(花郎制度)를 국가(國家)의 중심정책(中心政策)으로 채택하여 화랑도(花郎徒)가 선봉(先鋒)이 되어 신라(新羅)의 부흥을 이룩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무열왕(武烈王)과 김유신장군(金庾信將軍)은 660년 백제(百濟)를 병합(併合)하고 문무왕(文武王)은 668년 고구려를 병합(併合)하여 삼국통일(三國統一)의 대업(大業)을 완수하였다. 그러나 동족살생의 전역(轉役)에서 당(唐)의 힘을 끌어들이 백제나 고구려를 멸망시킨 삼국통일의 과업보다는 동아시아 당시의 국제적 여건에서 신라가 당(唐)을 군사적 외교적으로 물리치고 자주적(自主的) 역량으로 최초의 민족통일(民族統一)을 이룩하고 찬란한 통일신라 문화의 빛나는 아침을 열었다는 역사적 의의가 큰 것이다. 사실은 670년 당(唐)은 신라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평양성(平壤城)에 주둔하고 있는 사만 당군(四萬 唐軍)을 신라당천장군(新羅當天將軍)의 부대는 이를 공격하여 격파하고 70척(隻)의 군선을 침몰시키고 곁이후(鉗耳侯), 사만왕예(司萬王藝), 사왕익(史王益), 사마마네군(司馬馬禰軍), 사마법총등(司馬法聰等) 당(唐)나라 장수들을 생포하였다.

673년 신라 철천장군(徹川將軍)은 서해(西海)바다에서 당군(唐軍) 4천(千)을 참살하였고 674년 신라 문훈장군(文訓將軍)은 천성(泉城)에서 당군(唐軍)을 공격하여 1천 4백명(千 百名)을 참살하고 병선(兵船) 20척(隻)과 전마(戰馬) 1천필(千匹)을 빼앗았다. 675년 신라군(新羅軍)은 매소성의 20만 당군(唐軍)을 총 공격하여 격파하고 전마(戰馬) 3만3백 8십필을 얻었으며 이해에 신라군(新羅軍)은 18회(回)의 격전을 벌려 6천4조7명의 당군을 참살하였다. 그러나 신라군(新羅軍)의 손실도 커서 선백실모탈기 유동 거시지(仙伯悉毛脫起 儒冬 居尸知) 같은 용장(勇將)들이 수없이 전사(戰死)하였다. 676년 신라 시득(施得)장군은 당장(唐將) 설인귀가 지휘하는 당군(唐軍)과 기벌포(伎伐浦)에서 22회(回)의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여 사천명(四天名)을 참살하였는데 이때 신라의 거시지(居尸知)장군이 전사(戰死)하였다. 당(唐)은 안동도호부로 후퇴하고 드디어 677년에는 신성(新城)으로 퇴각하였다.

이리하여 신라는 백제나 고구려와 싸운 이상으로 당(唐)과 싸워 자주적(自主的)으로 국토통일을 이룩하고 주체적(主體的)입장에서 당(唐)을 견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신라

의 화랑(花郎)정신에서부터 자주적 민족통일(自主的 民族統一)과 문화(文化)창조의 정통성을 오늘에 이어받아 계승 창달하기 위하여 경주 남산(慶州 南山) 동쪽에 통일전(統一殿)을 조성하였다.

이곳에는 무열왕(武烈王)·문무왕(文武王)·김유신장군(金庾信將軍)의 영정이 모셔 있고 통일전역(統一戰役)의 역사 기록화(歷史 記錄畫)가 그려져 붙어 있으며, 기념비(紀念碑)와 사적비(事蹟碑)가 건립(建立)되었다. 건물(建物)은 신라시대의 여러 유적유물(遺蹟遺物)과 고구려 벽화고분의 그림에서 고증된 고식(古式)의 양식을 재현한 것이다. 경역의 조경과 남산(南山)의 정취가 서로 어울려 경주의 한 명소가 되었다.

우리는 통일전(統一殿)에서 무열왕(武烈王)·문무왕(文武王)·김유신장군(金庾信將軍)의 업적만을 숭앙하는 것이 아니라, 삼국통일대업(三國統一大業)의 역사적 과정에서 같이 일한 흠춘(欽春), 문훈(文訓), 품일(品日), 시득(施得), 천존(天存), 죽지(竹旨), 같은 용장(勇將)들과 관창(官昌), 반굴(盤屈)같은 희생적인 화랑정신(花郎精神)과 당군(唐軍)을 격파한 빛나는 전사(戰士)들 및 호국(護國)의 불교정신(佛敎精神)과 단합된 민족정신을 모두 함께 기리고 숭앙하는 것이다.

고려는 고구려의 기상과 국토를 계승하는 이념(理念)으로 건국한 나라다. 993년 글안의 침략이 있자 서희장군(徐熙將軍)은 고구려의 구강을 주장하여 외교적 수완으로 글안군을 철수시켰으며 서희장군(徐熙將軍)의 유적(遺蹟)은 경기도 여주에 있어 이를 보수(補修)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010년 글안의 40만군이 다시 침략함으로 의주 흥화진(義州 興化鎭)에서 끝까지 싸웠으며, 1018년에는 고려 강감찬 장군(姜邯贊 將軍)은 10만의 글안군을 귀주(龜州)에서 격멸하여 전사(戰史)에 길이 빛나는 귀주대첩(龜州大捷)을 이룩하였다. 그 대첩지(大捷地)는 북한(北韓)에 있어 보수(補修)할 수도 없으나 강감찬 장군(姜邯贊 將軍)의 출생지(出生地)인 서울 관악구의 낙성대(落星臺)를 규모있게 조성(造成)하여 그날의 위업을 되새기는 터전으로 만들었다.

고려는 1107년 윤관장군(尹瓘將軍)으로 하여금 17만의 대군(大軍)을 동원하여 여진(女眞)을 정벌하고 함경북도 두만강유역에 구성(九城)을 쌓아 고려의 국토를 넓혔다. 이 윤관장군(尹瓘將軍)의 유적(遺蹟)은 경기도 파주군에 있어 이를 보수정화(補修淨化)할 계획이다.

세계제국을 건설한 몽고는 1231년 고려를 침략하여 귀주성에서 고려 박서장군(朴犀將軍)의 부대와 30일간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끝내 함락하지 못하고 퇴각하였으며 또한 자주성(慈州城)에서 최춘명장군(崔椿命將軍)에게도 패하였다. 1232년 처인성(處仁城)에서 승군(僧軍) 김윤후장군(金允候將軍)은 몽장(蒙將) 살레탐을 화살로 쏘아 죽였다. 이는 한국전사상(韓國戰史上) 침략군의 최고 사령관(最高 司令官)이 전사한 흔쾌한 일전(一戰)이 아닐 수 없다. 김윤후장군(金允候將軍)은 1253년 충주성(忠州城)에서 상장군(上將軍)이 되어 몽고군과 70일의 공방전을 전개하여 패퇴시켰다. 몽고의 침략전에 있어서 김윤후장군(金允候將軍)은 가장 뛰어난 용장(勇壯)이었음을 알수 있다. 이 승첩의 처인성은 경기도 안성에 있어 보수(補修)를 하였고 충주성(忠州城)은 충주(忠州)에 있어 이도 보수(補修)를 실시하였다.

고려정부는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年間) 몽고의 침략에 대항하여 강화도(江華島)로 도읍을 옮겨 줄기차게 싸웠던 것이다. 강화를 지킨 주력은 삼별초(三別抄)의 정예군이였다.

그래서 강화의 고려궁지와 외성 내성(外城 內城)이 보수정화(補修淨化)되었다. 이곳에

서는 민족의 강인한 저력과 팔만대장경의 조판 및 금속활자의 제작 등 국난 중에서 찬란한 문화(文化)의 업적도 남겨놓았다. 그러기에 여기서 국난극복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문화의 슬기를 이어받는 교육의 도장으로 강화전적지(江華戰蹟地)가 깨끗이 조성(造成)된 것이다. 항몽투쟁의 선봉(先鋒)에 섰던 고려무인의 기상을 끝까지 관철한 삼별초(三別抄)에 대하여는 그 부대의 마지막 순의지(殉義地)인 제주도(濟州道) 항바두리성내에 「항몽순의탑(抗蒙殉義塔)」을 세워 그날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는 터전이 되도록 조성 중에 있다. 고려 말의 왜구(倭寇)의 침략이 시작되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1377年 정지장군(鄭地將軍)은 고려 수군(水軍)으로 전남 안락(全南 安樂)에서 왜구(倭寇)를 크게 격파하였고, 1378年 최영 장군(崔瑩將軍)은 홍산(鴻山)에서 왜구(倭寇)를 격파하여 대첩(大捷)을 이루고, 1380年 이성계 장군(李成桂將軍)은 황산(荒山)에서 왜구(倭寇)를 격파하여 역시 대첩(大捷)을 하였으며, 최무선 장군(崔茂宣將軍)은 금강(錦江) 하류에서 왜선(倭船) 500척(隻)을 화약(火藥)으로 공격하여 격멸하였다.

정지장군(鄭地將軍)의 유적(遺蹟)은 보수정화(補修淨化)할 것이며 홍山大捷地(鴻山大捷地)와 황산대첩지(荒山大捷地)는 보수(補修)되었고 최무선 장군(崔茂宣將軍)의 유적(遺蹟)은 조사중에(調查中)에 있다.

조선 세종시대(朝鮮 世宗時代)에는 우리 민족문화(文化)의 큰 대업(大業)이 이룩되었지만 국방(國防)에 있어서도 빛나는 업적이 많았다. 대마도를 정벌하고 육진(六鎭)을 개설하여 국토(國土)를 넓혔다. 육진개설(六鎭開設)에 있어서는 김종서장군(金宗瑞將軍)의 위업인바, 충남공주(忠南公州)에 장군의 유적(遺蹟)이 보수(補修)되어 있다.

조선(朝鮮)의 임진왜란(壬辰倭亂)은 기록과 유적(遺蹟)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1592年 4月 14日 정규장군(鄭瑋將軍)이 순국(殉國)한 부산진 전투(釜山鎭戰鬪)에서부터 1598年 11月 29日 이순신 장군(李舜臣將軍)이 순국(殉國)한 노량해전(露梁海戰)까지 수많은 전투(戰鬪)에서 승전(勝戰)과 패전(敗戰)이 수없이 거듭되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의 유적 중에서는 통쾌한 대서지(大捷地)가 있는가 하면 장렬한 순국(殉國)의 패전지(敗戰地)가 있다. 비참한 죽음과 졸렬한 보신(保身)과 처절한 옥쇄(玉碎)가 있다.

전투(戰鬪)의 규모가 크고 공방전의 시간이 길었다하여 중요(重要)한 유적(遺蹟)이 될 수 없고 그 많은 전투지(戰鬪地)가 다 호국선현(護國先賢)의 유적으로 보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국난(國難)을 막아 민족(民族)과 국가(國家)를 위기에서 구출하려는 헌신적이고 순국적(殉國的)인 정신이 깃들고 역사(歷史)에 길이 빛나는 대서(大捷)의 전과가 있는 곳으로 오늘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민족 앞날의 전진의 터전이 되는 대상이어야 한다.

1592年 4月 14日 부산진 전투(釜山鎭 戰鬪)는 정발장군(鄭撥將軍)이하 1천의 수비군이 소서행장(小西行長)의 주력(主力)과 용감하게 싸우다가 모두 전사하였으며 다대포(多大浦)의 첩사 윤흥신(尹興信)도 다대포성에서 사력을 다하여 싸우다 전사(戰死)하였다.

이어 왜군(倭軍)은 4月 15日 동래성(東萊城)을 공격하여 송상현(宋象賢)이하 성민(城民)과 군사가 모두 전몰하였다. 동래성(東萊城)은 아직도 완연히 남아 있고 성남(城南)쪽 산기슭에 충렬사(忠烈祠)가 건립(建立)되어 그날의 호국선열(護國先烈)의 신위(神位)를 모시고 있다. 이 충렬사(忠烈祠)는 그간에 퇴락되어 보수가 시급하였는데 경역도 협소하고 주위에는 주택이 들어서서 환경이 어지러웠다. 이를 확장하여 면모를 일신하고 부산(釜山)의 학생(學生)과 시민(市民)이 임진(壬辰) 그날의 순국정신(殉國精神)을 이어

받는 교육의 도장이 되도록 사당을 크게 다시 짓고 기념관과 사적비를 세우고 경내를 조화있게 조정하였다. 기념관내에는 순절도(殉節圖)와 더불어 기록화(記錄畵)를 그려서 전시하였고 조선시대 투구 등 유물도 전시될 것이며, 주차장 진입로(進入路) 등도 정돈하여 부산(釜山)의 임진기념공원(壬辰紀念公園)같은 기능도 하게 되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1592年 9月 1日 부산해전(釜山海戰)이다. 만일 우리가 이 해전에서 부산(釜山)을 점령 할 수만 있었다면 조선(朝鮮)에 상륙한 일본군(日本軍)은 전부 격멸되었을 것이다. 이 해전은 임진 칠년간(壬辰七年間)의 전투 중(戰鬥中)에 가장 큰 싸움이요, 양국이 최대(最大)의 해군을 동원한 일대 결전이었다.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李舜臣將軍)의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영(營) 함대와 이억기장군(李億祺將軍)의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 함대 및 경상우수영(慶尙右水營)의 원균(元均) 함대 등 총 332척(隻)의 조선수군이 왜군 모리 휘원(倭軍 毛利 輝元), 등당고호(藤堂高虎), 협파안치 등(脇坂安治 等)의 육상병력(陸上兵力) 약 1만 해상병력(海上兵力) 약 8천 함선 430척(隻)이 있는 부산포(釜山浦)를 공격하였던 것이다. 적은 바다에 나오지도 못하고 육지에서 조총을 쏘면서 성(城)을 수비하였다. 이 해전에서 적의 전함 수십척을 불태워 버리고 적장을 사로잡기도 했으나 이 해전의 선봉장(先鋒將)으로 돌진해 들어가던 정운장군(鄭運將軍)이 애석하게 적탄에 머리를 맞아 순국(殉國)하였다.

임진전쟁 중에서 조선군이 일본 주력(日本 主力)의 기지(基地)를 이와같이 대담하게 쳐들어가 전투는 없었다. 왜군(倭軍)의 모든 생사(生死)가 달린 부산포(釜山浦)는 본국과의 연락기지요 모든 군수물자가 이곳으로 왔던 것이니 왜군(倭軍)의 불안은 대단히 컸던 것이다.

1592年 7月 금산지역(鎭山地域)에서는 임진왜란 전란사에 잊을수 없는 전투들이 벌어졌다. 7月 7日 태치(熊峙)에서 정담장군(鄭湛將軍)의 부대는 왜적과 싸워 적이 감동할 만큼 전군(全軍)이 장렬히 순국(殉國)하였다. 적의 피해도 컸지만 적장 안국사 혜경(敵將 安國寺 惠瓊)은 「조 조선국 충간의담(弔 朝鮮國 忠肝義膽)」이란 묘비(墓碑)를 세우고 제사를 올려주었던 것이다.

7月 8日에는 이치(梨峙)에서 권율장군(權慄將軍)이 지휘하는 조선군(朝鮮軍)이 전라도를 공략하는 소조천융경(小早川隆景)의 주력(主力)과 싸워 대첩(大捷)을 이루워 전라도 곡창을 보전한 크나큰 전과를 올렸다. 후에 권율장군(權慄將軍)은 행주대첩(幸州大捷)보다 이치대첩(梨峙大捷)이 더욱 큰 전승이었다고 말하였다.

7月 10日에는 의병장(義兵將) 고경명선생(高敬命先生)이 거느린 8천의 군(軍)이 금산 눈벌에서 왜적과 싸워 이하 제장 용사들이 수없이 순국하였다. 8月 8日에는 조헌선생(趙憲先生)과 영규대사(靈圭大師)가 거느린 칠백의사(七白義士)와 승군(僧軍)이 금산 연곶에서 왜적과 싸워 한사람도 살아남기를 거부하고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인(一人)까지 용감히 싸우다 장렬히 옥쇄하였다.

조헌선생(趙憲先生)과 영규대사(靈圭大師)는 이미 8月 1日 청주성(淸州城)을 공격하여 탈환하고 금산의 적을 격멸하기 위하여 진군(進軍)하였던 것인데 약한 병력으로 소조천융경(小早川隆景)의 주력(主力)과 싸운다는 것은 필패(必敗)를 예견한 싸움이었으나 전라관군(全羅官軍)과 전기(戰期)를 약속하고 그 확답도 받지 못한채 전투에 임하면서 한번 약속한 신의(信義)를 묵숨으로 지켰으며 조헌선생(趙憲先生)의 뜨거운 충의(忠義)에 따라 죽을 줄 알면서 의리(義理)를 지켜 모든 군사가 따라 나섰으니 이는 임진(壬辰)전란사에 절개있는 살신보국(殺身報國)의 일군(一軍)이었다. 이 칠백의사(七白義士)의 시

체를 한곳에 묻어 칠백의총(七百義塚)이라 이름하고 중용사의 사당이 건립되었으며 중봉 조선생 일군순의비(重峰 趙先生 一軍殉義碑)가 건립(建立)되어 있었다. 이곳을 규모있게 확장하고 사당을 다시 짓고 기념관을 건립하였으며 기념관 내에는 당시의 전황(戰況)을 기록화로 그려 붙이고 조헌선생(趙憲先生)의 유물을 전시하였다. 이 사당에는 조헌선생(趙憲先生)과 영규대사(靈圭大師) 및 제장(諸將)과 금산 제1차전(鎭山 第1次戰)에서 순국(殉國)한 고경명선생(高敬命先生)과 그 종사관 및 사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이곳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의 의병유적 중(義兵遺蹟 中) 가장 으뜸이 되는 곳이며 죽어서 영원히 사는 민족(民族)의 호국영령이 잠든 곳이다. 이 뜨거운 호국(護國)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국난극복의 사표(師表)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태치(態峙) 싸움의 정담장군 유적(鄭湛將軍 遺蹟)은 보수(補修)할 계획(計劃)이며 고경명선생(高敬命先生)과 아들 고인후(高因厚) 및 진주성(晉州城)에서 장렬히 순국한 아들 고종후장군(高從厚將軍)의 신위(神位)가 봉안된 전남 광산(全南 光山)의 포충사도 전면 보수 정화중에 있다. 1592年 7月 8日은 임진전란사(壬辰戰亂史)에 길이 빛나는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의 한산대첩(閑山大捷)이 이룩된 날이다. 이에 앞서 5月 7日 옥포(玉浦)에서 파파안치(坡坡安治)의 적선 26척(隻)을 격멸하였고 5月 8日에는 합포(合浦)와 적진포(赤珍浦)에서 적의 전함을 격침하고 5月 29日 사천(泗川)에서 구귀가용(九鬼嘉隆)의 부대를 격멸하였는데 이순신 장군(李舜臣將軍)은 선봉(先峰)에 서서 지휘하다가 적탄(敵彈)에 왼췌 어깨를 맞아 부상하였으나 알리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고 난 후에 피가 발에까지 흘러내렸으며 칼로 어깨를 찢고 탄환을 뽑아 내었는데 오히려 담소자약(談笑自若)하였다 한다.

6月 2日은 당보(唐補)에서 6月 5日은 당항포(唐項浦)에서 6月 7日은 울포(栗浦)에서 싸우기만 하면 여지없이 적을 격파하였다. 그후 이순신 장군(李舜臣將軍)은 모함으로 옥사를 다하고 백의종군을 하다가 복직되어 1594年 3月 4日 다시 당보(唐補)에서 왜적을 크게 무찌르고 1597年 9月 7日 오랑해전(鳴梁海戰)에서 대첩(大捷)을 이루었으며 1598年 11月 19日 노랑해전(露梁海戰)에서 5백의 적선(敵船)을 격파한 후 장렬히 순국(殉國)하였다. 만일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같은 수군(水軍)의 명장이 없었으면 일본(日本)군의 보급은 서해(西海)바다를 넘어 평양성(平壤城)에 연결되었을 것이며 칠년 국난(七年國難)의 보급창인 전라도(全羅道)가 보전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왜적(倭敵)은 험한 육로(陸路)로 보급을 나르면서 수많은 의병(義兵)의 궤기로 희생이 많았으며 끝내 남(南)으로 후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칠년 국난(七年國難)을 한 몸으로 막아 위난(危難)의 조국(祖國)을 수호한 성웅(聖雄) 이순신 장군(李舜臣將軍)의 위업을 민족만대에 길이 전하고 이를 이어받아 조국수호의 정신적 기틀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충남(忠南) 온양에 현충사(顯忠祠)를 건립(建立)하고 경역을 규모있게 조성하여 충무공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는 교육도장으로 하였다.

한산 대첩(閑山 大捷)의 기적을 이룩한 한산도 제승당을 깨끗이 보수정화(補修淨化)하여 그 면모를 일신하고 세계 해전사(海戰史)에 불멸하는 자랑스러운 전승지로서 나라 사랑하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업 앞에 고개숙여 숭앙하며 국난극복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민족(民族)의 성스러운 터전으로 조성되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과 유적(遺蹟)은 곳곳에 남아 있어 이 유적들은 원형을 잘 보존하여 옛 모습대로 길이 전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과 더불어 나라를 구한 이억기 장군(李億祺將軍)과 나

대용(羅大容), 이운룡(李雲龍) 등 제장(諸將)의 유적(遺蹟)들도 소중히 보수(補修)해 나갈 것이다.

1592年 4月 28日 추풍령(秋風嶺)에서 흑정장정(黑政長政)의 부대를 격파한 정기룡(鄭起龍)장군은 11月에는 상주지역(尙州地域)에서 정경세선생(鄭經世先生)의 의병(義兵)과 더불어 왜적(倭敵)을 격파하고 감창(感昌)에서도 승첩하였으며 1597年 8月 16日에는 고령에서 소조천융경(小早川隆景)의 6만군(萬軍)과 맞붙어 패퇴(敗退)시켰으며 임진란(壬辰亂) 대소(大小) 60여전에서 항시 선본자이 되어 육전(陸戰)의 맹장중에 맹장이었다. 정기룡(鄭起龍) 장군과 정경세선생(鄭經世先生)의 유적(遺蹟)도 보수정화(補修淨化)할 것이다.

경상도(慶尙道)에는 광재우, 김면, 정인홍 등 의병장이 임진왜란 초기부터 일어나 그 전과(戰果)가 자못 컸다. 1597年 7月의 의령 정암진 승첩은 광재우장군의 신출귀몰하는 게릴라전법으로 안국사 혜경(安國寺 惠璟)의 부대를 격멸하였으며 무계전투(茂溪戰鬪)는 김면장군이 모리휘원(毛利輝元)의 부대를 물리쳤고 성주지방(星州地方)과 오척현(牛脊峴)에서도 김면장군은 소조천융경(小早川隆景)의 부대를 격퇴하였다. 당시 김면장군은 경상도 의병의 중추적 인물이다.

광재우 장군은 의령 기(岐)강(江)과 영산 창녕의 화왕산성 등지에서 적을 격퇴하였던 것이다. 지금의령 정암진 승첩지(鼎岩津 勝捷地)에는 광재우장군의 의병유적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사당(祠堂)을 신축하고 기념관(紀念館)을 건립하며 경내를 규모있게 조성하여 국난에 스스로 나라지킨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는 교육도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1952年 9月 16日 함경도 경성에서는 정문부장군(鄭文孚將軍)의 의병(義兵)이 가등(加藤)의 왜군(倭軍)을 격파하고 이어 10月 30日에는 길주(吉州)에서 1천의 왜적(倭敵)을 격파하고 12月 10日에는 쌍포(雙浦)에서 1593年 1月 28日에는 백담교(白塔郊)에서 가등(加藤)의 군(軍)을 격멸하여 왜군(倭軍)은 남(南)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정문부장군(鄭文孚將軍)의 유적(遺蹟)은 북한지역(北漢地域)이 되어 승첩지를 보수정화(補修淨化)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운 일이며 사당이 진주남강(晉州南江)댐 가운데인 충의(忠義)도(島)에 있어 이를 보수정화(補修淨化)할 것이다.

남강(南江) 댐의 경관과 어울려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는 아름다운 명소가 될 것이다.

1592年 10月 10日은 한산대첩과 아울러 임진 삼대첩(三大捷)의 하나인 진주성(晉州城) 대첩이 이룩된 의의 깊은 날이다. 진주성(晉州城)의 김시민 장군(金時敏將軍)은 3천 8백명의 수성군(守城軍)으로 2만 왜적을 막아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이를 격퇴시켰으나 적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순국(殉國)하였다. 김시민 장군도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충무공의 시호를 받았다. 이 전투(戰鬪)에서 적장 장강(敵將 長岡)이 전사(戰死)하고 수많은 왜군(倭軍)이 죽었다. 임진년(壬辰年)에 왜군(倭軍)이 육전(陸戰)에서 성(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한 것이 진주성(晉州城) 하나였다. 풍신수길(豊臣秀吉)이는 이 치욕을 만회하기 위하여 1593年 작전명령(作戰命令)을 내리면서 일인(一人)도 남기지 말고 도살(屠殺)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1593年 6月 19일부터 6月 29일까지 왜적(倭敵)은 9만 3천의 대병력(大兵力)으로 진주성(晉州城)을 포위하고 공방전을 벌려 성을 함락하였다. 김천감(金千鑑)·최경희(崔慶會)·황진장군등(黃進將軍 等) 역전의 용장(勇將)들이 장렬히 싸우다 순국(殉國)하고 성내(城內) 군(軍)·민(民) 6만(萬)이 진몰하였다.

한 아녀자 논개(論介)까지도 적장(敵將)을 안고 남강(南江)에 떨어져 꽃다운 민족(民族)의 혼(魂)으로 산화되었던 것이니 진주성(晉州城)은 대첩지(大捷地)인 동시에 장렬한 순국(殉國)이 있는 호국(護國)의 제단이다.

진주성(晉州城)의 성곽(城郭)과 축석루, 북장대, 서장대, 축석문 등이 보수 복원되고 호국(護國)영령이 봉안된 창렬사와 논개(論介)사당 등(等)이 보수되었다.

앞으로 대첩관(大捷館)이 건립(建立)될 것이며 일부(一部)의 성곽이 보수될 것이다. 유유히 흐르는 푸른 남강(南江)의 절경과 더불어 어기찬 민족의 맥박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곳 진주성(晉州城)은 아직도 그날의 매서운 기개가 스며 이어지고 있다. 1593年 1月 9日 평양성 전투(平壤城 戰鬪)는 임진왜란의 전세를 변화시킨 일전이다. 이여송(李如松)이 거느린 명군(明軍)이 이 전투(戰鬪)에 참전한 것이다. 조선군(朝鮮軍)과 명군(明軍)의 합동작전(合同作戰)으로 소서행장(小西行長)의 일만 오천군(一萬五千軍)이 패(敗)하여 남(南)으로 퇴각한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용감한 승군(僧軍)을 잊을 수 없다. 임진왜란에 승군(僧軍)의 활동(活動)이 눈부신바 있었으며 사명대사(泗冥大師), 영규대사(靈圭大師), 처영등(處英等) 승장(僧長)들의 전공(戰功)이 대단하였다. 특히 사명대사(大師)는 승군 총 지휘자로서 1594年 가등청정(加藤清正)과 3번의 강화담판을 벌이기도 하고 1597年 울산전투와 1598年 순천전투에서 크게 적을 격멸하였으며 1604年 국서(國書)를 휴대하고 일본(日本)에 가서 덕천가강(德川家康)을 만나 강화를 맺고 3천 5백명의 포로를 인솔해 오기도 하였다.

이 승장(僧將)들의 유물(遺物)과 유적(遺蹟)은 해남 대흥사(海南 大興寺)와 밀양 표충사(表忠寺) 해인사 홍제암이 대표적인 바 유물전시관(遺物展示館)을 신축(新築)하고 유적(遺蹟)을 보수(補修)하고 있다.

1593年 2月 12日은 임진 삼대첩(三大捷)의 하나인 행주산성 대첩(幸州山城 大捷)의 날이다. 1月 27日 벽제관(壁濟館)에서 이여송(李如松)의 명군(明軍)이 왜군(倭軍)에게 크게 패하여 후퇴하였으며 명군(明軍)의 사기는 전의를 잃고 있었다. 행주산성(幸州山城) 공략에 나섰다. 권율장군(權慄將軍)을 위시한 처영(處英)의 승군(僧軍)과 조경(趙儼) 등 제장과 용사들 2천8백명이 행주 덕양산(幸州德陽山)에 목책(木柵)을 겹겹이 구축하고 맞섰던 것이다.

7차의 격렬한 백병전이 전개되고 왜적(倭敵)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아녀자들까지 치마를 찢어 돌을 날라서 싸움을 도왔던 것이니 짧은 치마를 행주치마라 하는 연유가 여기서 나왔다.

적은 드디어 패퇴(敗退)하고 말았다.

이 일전은 전일 패전(敗戰)으로 사기가 떨어진 명군(明軍)에게 전세를 만회시킨 통쾌한 승첩이며 조선군 자력(自力)으로 10배가 넘는 주력(主力)의 적(敵)을 격파한 자랑스러운 전투였다. 왜적(倭敵)은 우희다(宇喜多)를 위시한 조선에 침략한 용장(勇將)이 다 붙었던 것이며 적장 길천광가(吉川廣家)는 중상(重傷)을 입고 퇴각하였으며 총사령관 우희다(宇喜多)도 부상을 입었다. 적은 시체를 불태우고 돌아갔으나 2백여 구의 타다 남은 시체는 그대로 방치되었고 우리는 7백 27건(件)의 군수물자와 병기를 노획하였다.

이로 인하여 왜적(倭敵)은 서울서 물러가게 되었다. 이 행주산성에는 총장사, 대첩비, 덕양정, 진강정 등 건물이 새로 서로 당시의 옛 대첩비가 있으나 풍우에 마멸되어 읽을수가 없다.

경역에 길을 정비하고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기념관에는 행주대첩의

기록화가 전시될 것이다.

경주지역(慶州地域)은 임진왜란 칠년간(七年間)의 싸움이 그치지 않은 곳이다. 1592年 8月 2日 경주노곡(慶州奴谷)에서 김호장군(金虎將軍)은 왜적을 추격 섬멸하다 장렬히 순국(殉國)하였고 1592年 9月 8日 경주성(慶州城) 전투에서 이장손(李長孫)이 만든 비격진천뢰를 사용하여 박의장(朴毅長)장군은 경주성을 수복하였다. 김호장군(金虎將軍)의 고택(古宅)은 보수중에 있으며 박의장(朴毅長)장군의 유적(遺蹟)도 보수할 것이다.

영천(永川)지구에서 권응수장군(權應洙將軍)은 화포로 왜적(倭敵)을 공격하여 영천성(永川城)을 탈환하고 경주성(慶州城) 전투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울산전투 등 수많은 전역에 참전하였다. 그리고 정세아(鄭世雅) 정대임(鄭大任)도 영천(永川)에서 의병(義兵)을 일으켜 그 공이 컸으며 경주(慶州)전투 울산 전투 등에 참여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영천의 권응수 장군(權應洙將軍)과 정세아(鄭世雅), 정대임장군(鄭大任將軍)의 유적을 보수할 것이다.

그리고 임진의병장으로 용감하게 싸우던 김덕령 장군의 광주 충장사가 규모있게 조성되어 있다.

1597年 8月 7日은 남원성(南原城)에서 조명군(朝明軍)이 왜장 우희다(宇喜多)와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지휘하는 5만(萬) 6천군(千軍)의 공격을 받고 성이 함락되어 양원(楊元)이 지휘하는 명군(明軍)과 오응정(吳應鼎) 등 조선군이 수없이 전사하였다. 이곳에는 만인의총(萬人義塚)이 있어 현재 경역을 규모있게 넓히고 묘역을 조화있게 조성하였으며 사당을 신축하고 문루와 담장 밑 조경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만인의총이 완성되면 남원지방의 한 명소로서 호국정신의 계승도장이 될 것이다.

이외 임진 칠년 국란(壬辰 七年 國亂)을 수습하고 이에 반성의 징비록을 쓴 류성룡(柳成龍) 선생의 유적이 보수보존 되었으며 수많은 임진유적과 선열(先烈)이 있다. 이는 연차적으로 그 중요성에 따라서 원형대로 보수해 나갈 것이다.

1636年 병자호란 유적(丙子胡亂 遺蹟)은 강화성(江華城)과 남한산성(南漢山城)과 백마산성(白馬山城) 등이 있다.

이 전쟁(戰爭)은 우리 민족사(民族史)에 치욕적인 한 장이 아닐 수 없다. 강화성(江華城)이 1637년(年) 청군(靑軍)에 의하여 유린되고 김상용선생(金尙容先生)이 강화城南門에서 치욕을 감당 할 수 없어서 분신 자살하였으며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청군(靑軍)과 싸우던 인조(仁祖)는 청태종(靑太宗)에게 삼전도(三田島)에 재려와서 항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청(靑)의 30만군(萬軍)도 임경업 장군(林慶業將軍)이 지키는 백마산성(白馬山城)은 공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임경업 장군(林慶業將軍)에 대하여는 충주달천(忠州達川)에 유물(遺物)과 유적(遺蹟)이 전하여 음으로 경역을 규모있게 넓히고 사당을 다시 짓고 유(遺)물(物)관(館)과 기념비를 세우며 진입로 주장을 정비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유적도 보수(補修)되었다. 1866年 병인양요(丙寅洋擾) 때는 프랑스 극동함대가 600명(名)의 육전대를 이끌고 강화(江華) 이혼돈(里患墩)으로 상륙을 개시하여 강화성(江華城) 문수산성(文壽山城) 등을 공함하였으나 삼랑성(三郎城)에서 양헌수 장군(梁憲洙 將軍)이 지휘하는 용감한 조선군(朝鮮軍)의 기습을 받고 패(敗)하여 도망가고 말았다. 강화 전적지 보수정화사업으로 갑관돈(甲串墩)과 강화성(江華城) 및 삼랑성(三郎城) 복원보수(復原補修) 되었으며 갑관돈(甲串墩)에는 그날의 대

포(大砲)가 전시(展示)되어 있다.

1871년(年) 미(美) 아세아 함대와 싸운 신미양요(辛未洋擾)때는 강화도(江華島)의 초지진(草紙鎭) 덕진진(德津鎭) 광성보(廣城堡)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특(特)히 광성보(廣城堡)에서는 어재연장군(魚在淵將軍)이하 용감한 조선군(朝鮮軍)은 필사항전(必死抗戰)의 백병전을 전개하여 상륙한 미군(美軍)과 싸우다 무기의 열세로 모두 장렬히 순국(殉國)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875年 일본군함 운양호(雲楊號)의 불법적 침략에 포격을 가하여 일대 격전이 초지진(草紙鎭)에서 일어나고 1876年 강화성 연무당(江華城 鍊武堂)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국력(國力)의 뒤받침없이 국제간에 대등한 조약이란 있을 수도 없고 외침의 문호만 개방한 결과가 되어 일본의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인천 부산 원산의 항구가 개항되기는 했으나 결국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인 초지진(草紙鎭) 광성보(廣城堡) 덕진진(德津鎭)이 복원 보수(復原 補修)되었으며 이에 따른 돈대(墩臺)와 포대들이 복원되고 강화성 연무당(江華城 鍊武堂) 옛터에 강화조약의 사적비를 세워 역사의 반성을 되새기게 하였으며 「강화전적지 정화기념비」를 광성보의 용두돈내(龍頭墩內)에 세우고 국난극복(國難克服)의 결의를 다짐하게 하였다.

강화(江華)는 우리민족사에 장구한 투쟁의 장소로 또는 고려의 팔만대장경, 금속활자, 청자문화의 슬기도 스며 있는 곳이며 멀리 거슬러 오르면 국조단군(國祖檀君)의 마니산 유적이 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민족의 아득한 역사와 강인한 저항정신과 찬란한 문화의 족적(足蹟)을 오늘에 이어받는 감흥깊은 역사의 교육장으로 호국(護國)의 정신을 이어받게 조성되었다. 1895年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충주(忠州) 양구(楊口) 단양(丹陽) 상주(尙州)등지에서 왜군(倭軍)과 싸운 류인석(柳麟錫) 서상열 장군(徐相烈 將軍)의 유적(遺蹟)이나 1906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대마도에서 순국한 최익현 선생(崔益鉉 先生)과 1907年 원주(原州)에서 의병을 일으켜 충주(忠州), 서울, 홍주(洪州)에서 왜군과 싸운 이강년(李康年), 민궁호 선생(閔肯鎬 先生) 및 신돌석(申疇錫) 전수용(全垂鏞) 선열(先烈)의 유적 등은 보수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보존하게 되었다.

1909年 만주 할빈역에서 민족의 원수 이등박문에게 권총의 세례를 가하고 1910年 여순(旅順) 감옥에서 장렬히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安重根 義士)의 유적(遺蹟)은 서울 남산(南山) 기념관에 잘 보존되어 있다. 1932年 상해 홍구공원(上海 虹口公園)에서 폭탄을 던져 사해 파견군 사령관 등 수많은 일본인을 살해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항일정신을 세계에 과시하고 중국인을 놀라게 한 윤봉길의사(尹奉吉 義士)의 생가(生家) 및 충의사(忠義祠)가 규모있게 정화되었으며, 기념관은 아담하게 건립되어 의사(義士)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1919年の 삼일(三一)운동에 처녀의 몸으로 선봉에 나서서 진천(鎭川)가두를 함성으로 덮고 열렬히 싸우다 옥중에서 순국한 류관순의사(柳寬順 義士)의 집터와 봉화지가 말끔히 정화(淨化)되었으며 봉화탑과 기념비가 섰다.

그리고 이봉창(李奉昌), 안택규(安宅奎), 김좌진(金佐鎭), 신채호(申采浩) 등(等) 선열(先烈)의 유적도 보수보존(補修保存)되어 갈 것이다.

3. 민족사상(民族思想)의 선현유적(先賢遺蹟)

민족사상(民族思想)을 정치(政治)·종교(宗教)·철학(哲學)·과학(科學)·사회(社會)의 다섯면으로 요약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유적을 연대별(年代別)로 정리해 보자.

고대정치사상(古代政治思想)으로서는 천명사상(天命思想)이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의 뜻을 헤아리는 천심(天心)이 곧 민심(民心)인 것이다.

단군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理念)으로 고조선(古朝鮮)을 건국하였던 것이니 우리는 국조단군(國祖檀君)의 유적(遺蹟)에 대하여 민족의 사상적 시원으로서도 보존의 가치가 큰 것이다. 전국의 여러 곳에 단군(檀君)을 모신 집이나 단(壇)이 있지만 강화(江華) 마니산의 참성단이 그 으뜸이다. 이곳은 원형의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오르는 길을 보수하고 주위의 자연(自然)을 잘 보존토록 하여 옛스러운 조화를 깨뜨리지 않게 하고 있다.

신라(新羅)의 건국신화(建國神話)도, 천명사상(天命思想)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화백(和百)」이란 민주제도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유적으로 박혁거세릉(朴赫居世陵)이 있는 경주오릉(慶州五陵)이 있다. 이곳은 오랜 세월에 눈발으로 침식되었던릉역(陵域)을 다시 찾아서 경역의 환경을 조화있게 조경하고 승덕전(崇德殿)을 보수하였다.

한국 종교사상의 거성(巨星)은 원효대사(元曉大師)이다. 원효는 불교를 관념(觀念)의 회유 사변(思辨)의 정론에서 구제(救濟)의 의무(義務)로 전향시키고 산간(山間)의 절에서 중생의 민간(民間)으로 끌어내어 머리 속의 종교를 실생활(實生活)로 옮겨 놓았다. 이는 인도의 서론적 불교(緒論的 佛敎)와 중국(中國)의 각론적 불교(各論的 佛敎)를 회통(會通)의 결론적 불교(結論的 佛敎)로 발전시켜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해동종(海東宗)을 열었으며, 한국 문화사(文化史)에 빛나는 설총(薛聰)을 낳기도 했다. 이는 신라불교가 현세적(現世的)이요 실천적인 불교로서 삼국통일(三國統一)의 정신적(精神的) 지주가 되고 신라문화의 영혼이 되었다. 원효대사의 족적(足蹟)이 어느 산사(山寺)엔들 거치지 않은 데가 없듯이 많지만 그 중에 으뜸은 분황사(芬皇寺)와 고선사지(高仙寺址)이다. 그러나 고선사지(高仙寺址)는 경주 보문단지의 개발로 댐 속에 수몰되어 발굴조사가 끝났으며 탑(塔)은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에 이건(移建)되었다. 원효대사의 소상이 봉안되었던 분황사(芬皇寺)는 아직도 최고석탑(最高石塔)을 보존하고 남아있어 이곳을 규모있게 복원 정화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불교의 사상적 고승(高僧)인 원효대사(元曉大師)를 기념하는 명찰(名刹)이 될 것이다.

한국 철학 사상의 대가는 이황선생(李滉先生)과 이이선생(李珣先生)이다. 중국(中國)의 유학을 받아들여 새로운 경지를 열고 한국 유학 사상의 대 학파를 완성하였으며 일본(日本)에까지 그 영향을 크게 끼쳤다. 퇴계 선생(先生)은 주자(朱子)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이기이면론(理氣二面論)으로 발전시켰다. 즉 주자는 하나의 물(物)이 이(理)와 기(氣)의 이성분(二成分)이라는 것에서 퇴계 선생(先生)은 이(理)는 보이지 않는 대신 이상(理想)이며 선한 것이고 기(氣)는 우리의 감각에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악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것이라 하여 마음의 주관으로 분석하는 것이라 하였다. 율곡 선생(先生)은 퇴계 선생(先生)의 이원론적(二元論的) 경향을 극복하고 기(氣)에는 반드시 이(理)가 나타난다.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주장하였다. 이(理)는 나타나는 모든 것의

까닭이며 나타나는 것은 기(氣)이고 기(氣)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理)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理)와 기(氣)는 서로 원인(原因)과 결과의 관계로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 본 것이다. 이러한 것은 푸라톤의 이데아와 칸트의 선형적대상론 헤겔의 개념론과도 상통하는 점이다. 이러한 사상은 조선오백년(朝鮮五百年)을 지배한 학설로서 신학문(新學問)의 도입을 저해하기도 했으나 끼친바 영향은 지대하였다.

퇴계 선생(先生)의 유적으로 안동(安東)의 도산서원(陶山書院)은 조선(朝鮮)유학의 본산이기도 하다. 이곳의 도산서당 상덕사 전교당(尙德祠 典敎堂)·농운정사 등이 보수되고 유물전시관(遺物展示館)을 신축하였으며 서원내의 전적을 분류정리하고 경역을 규모있게 정비하였다. 율곡 선생(先生)의 유적으로는 강능 오죽헌(烏竹軒)과 파주의 자운서원이 규모있게 조성(造成)되었다. 과학사상(科學思想)으로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이상(理想)으로 삼고 과학정신(科學精神)에 입각하여 산업 경제 언어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실학사상(實學思想)이다. 이는 17세기부터 철학적 유학에 반기를 든 운동이 일어나 과학적 개혁이 제창된 것이다.

이 학파는 유형원(柳馨遠)에서 시작되어 김육(金堉), 이익(李瀾), 정약용(丁若鏞), 안경복(安鼎福), 신경준(申景濬), 홍대용(洪大容), 박지원(朴趾源), 이덕무(李德懋), 박제가(朴齊家) 이규경(李圭景), 김정희(金正喜) 등에 이어 내린다.

이 실학파(實學派)의 기념비적 유적을 정하여 규모있게 종합적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사상(社會思想)은 실학운동과 더불어 서구의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민족(民族)의 내부에서 주체적(主體的)으로 움트기 시작하여 개화 사상에 전통적 종교사상을 결합한 동학사상(東學思想)이다. 이를 제창한 사람은 최제우선생(崔濟愚先生)으로서 사회개혁의 혁명적 기치를 들고 천도교를 창시한 것이다. 이는 유(儒)·불(佛)·선(仙)에서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택하여 인문지상주의(人間至上主義) 인간평등주의(人間平等主義)를 제창하였다. 즉 인내천(人乃天)을 주창하여 신(神)이나 어떤 우상을 배격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것이며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 하였다. 인간성(人間性)은 우주본체(本體)의 구체적 표현(表現)이며 인간(人間)은 평등(平等)하다고 하여 미신 우상 편견 이기(利己)등 개성의 해악과 정신적 질병을 퇴치하여 정신개벽(精神開闢)을 이루고 민족개벽(民族開闢) 사회개벽(社會開闢)의 단계를 거쳐 지상천국의 건설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민중운동(社會民衆運動)의 선구가 되어 한말(韓末)의 문란한 정치에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며 우리민족의 주체적(主體的) 정신을 나타내고 민족의 참다운 이상(理想)을 지향하여 현실(現實)을 구제하는 살아있는 사상(思想)이며 종교이다.

최제우 선생(崔濟愚先生)은 1864年 3月 10日 대구(大邱)에서 관헌에 의하여 단두형(斷頭刑)을 받았으나 그의 사상(思想)은 전국에 전파되어 천도교(天道敎)를 창시하고 1919年 삼일운동(三一運動)의 중심세력이 되기도 하였다.

최제우 선생이 포교하던 경주의 용담정이 천도교인에 의하여 규모있게 가꾸어지고 이에 연결되는 도로사업과 교량사업이 이룩되었다. 그리고 그의 생가지(生家址)에는 사적비가 서로 교인의 순례지가 되었다. 그리고 동학혁명의 주장(主將)이며 사회개혁의 기치를 들고 탐관오리(貪官汚吏)를 격살하던 전봉준(全捧準)장군의 혁명지와 고부유적(古阜遺蹟)이 보수 보존되었으며 그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가 섰다.

4.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보존(保存)과 계승

한국(韓國)의 구석기시대 유적(舊石器時代 遺蹟)은 금강(錦江)유역이나 함북 두만강(咸北 豆滿江) 기슭 또는 제주도 등지(濟州道 等地)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유적(遺蹟)의 조사(調查)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그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민족(韓國民族)의 조상(祖上)은 BC 3000년부터 시작된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인류(人類)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적(遺蹟)은 두만강 대동강 한강 서해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강(江)가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강이나 바닷가에서 생활(生活)하였고 사냥을 하거나 물고기 조개 등을 잡아먹고 자연채집으로 열매를 따먹었던 것이다. 이 즐문토기 유적은 시베리아와 연결되고 있다.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의 무문토기(無文土器)유적(遺蹟)은 BC 1000년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진다. 이 시대는 농경문화의 발달로 강이나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이 산자락이나 들역가에 옮겨오며 부족국가의 출현을 볼 수 있다. 묘는 석곽묘나 지석묘로서 그 유적(遺蹟)이 전국 도처에 산재되어 있으며 유물(遺物)의 출현도 많다. 고조선(古朝鮮)의 건국(建國)은 대동강(大洞江)가에서 부족연맹의 결성으로 늦어도 BC 4세기 경에는 이룩되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중국(中國)의 주(周)가 쇠약해지고 연(燕)이 왕(王)을 칭할 무렵 고조선(古朝鮮)도 왕(王)을 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韓國)의 초기 철기시대는 BC 4세기경에 중국의 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은 대동강유역이나 김해 웅천성산 등 패총 유적과 전국에 산재한 토광묘나 석곽 묘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는 바 청동기와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선사시대의 유적은 문헌의 자료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발굴조사로 연구되어 고고학의 과학적 연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적의 보존과 조사연구는 우리 민족의 상고(上古)를 밝히는 중요한 역사책이다. 우리는 기원 1세기까지를 원시문화(原始文化)의 성장기(成長期)로 보고 1세기에서 13세기까지를 한문화(漢文化)와 불교문화(佛敎文化)의 수용으로 민족문화(民族文化)의 발전기(發展期)로 보며 20세기까지는 유교문화(儒敎文化)의 시대 그후를 서구문화(西歐文化)의 유입시대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三國時代)는 고유(固有) 한국문화의 바탕 위에 한문화(漢文化)와 불교문화(佛敎文化)의 유입으로 복합 생성(生成)하여 민족문화의 발전기에 해당한다. 고구려는 옹위하고 강인하며 힘이 넘치는 문화의 개성을 발휘하였던 것이니 중국(中國) 통구에 있는 광개토대왕의릉(陵)과릉비(陵碑)와 장군총의 석단식 석총과 북한(北韓)에 있는 수십기의 벽화고분에서 볼 수 있는 바이다. 고구려 와당(瓦當)에 나타나는 연화문(蓮花文)의 강인한 힘과 사지(寺址) 궁지(宮址) 등에서 엿볼 수 있는 문화(文化)의 족적(足蹟)은 백제나 신라와 선진에 있었다. 이는 평양지방(平壤地方)이 한문화(漢文化)의 저수지같은 중심지(中心地)가 되어서 중국문화(中國文化)의 융합이 가장 빠르게 일어난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분단된 국토의 슬픔을 여기서도 맛보는 것이며 그 문화(文化)의 유적(遺蹟)을 실감있게 조사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

백제문화(百濟文化)는 한성시대(漢城時代)와 공주시대(公州時代)와 부여시대(扶餘時代)로 구분할 수 있는바 7세기까지의 문화(文化)유적을 보존하고 있다.

초기 한성시대(漢城時代) 유적으로 서울 풍납동 토성과 남서울 지역의 석단식 고분(古墳)이 발견(發見)되어 고구려 문화(文化)의 밀접히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적(遺蹟)은 외형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중요(重要)한 위치를 차지한다.

공주시대(公州時代) 유적은 공주 송산리릉묘(宋山里 陵墓)와 성(城)이나 사지(寺址) 등 유적(遺蹟)과 특히 1971년에 발견(發見)된 무녕왕릉(武寧王陵)과 그 유물(遺物)에서 백제 문화(文化)의 면모를 확실히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주박물관(公州博物館)에 전시된 이러한 유물은 백제(百濟)뿐 아니고 일본(日本)과 양(梁)의 문화(文化)를 조사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다. 백제는 이때 남조(南朝)의 양나라와 문화(文化)의 교류가 활발하고릉묘(陵墓)도 전축(塼築)으로 쌓아 남조(南朝)의 양식을 도입 하였으며 유물 중(遺物中)에도 그러한 실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문화(日本文化)의 은사국(恩師國)으로서 비조문화(飛鳥文化)를 열게 하였던 것이다. 백제(百濟)는 633년 신라 선덕여왕(新羅 善德女王)이 호국(護國)의 최대 최고(最大 最古) 상징인 황룡사 구층탑(皇龍寺 九層塔)을 건립(建立)할 때 아버지 등(等) 이백명(二百名)의 백제(百濟) 기술자를 초청하여 완성(完成)하였던 것이며 일본(日本)의 범흥사(法興寺) 사천왕사 등(四天王寺 等)도 백제(百濟)의 기술자가 세운 것이다. 백제 근초고왕대(百濟 近肖古王代)에서부터 아화왕대(阿華王代)에는 아지(阿知)나 왕인(王仁)이 일본(日本)에 건너가서 논어(論語)나 천자문경전 등(千字文經典 等) 유발(儒發)을 전하여 가르치고 일본문화(日本文化)의 기틀을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악사(樂師) 직물공(織物工) 양주인(釀主(酒)人) 야공(冶工) 봉녀(縫女)까지 건너가 기술을 전하여 일본(日本)의 물질문화(物質文化)의 시조가 되었다.

백제 성왕대(百濟 聖王代)에는 백제문화(百濟文化)의 황금시대(黃金時代)로서 일본(日本)에 불교(佛敎)를 전하고 수많은 학자(學者)와 승려와 화가 등 예술가와 기술자가 건너가 일본 역사상(日本 歷史上) 불교문화(佛敎文化)의 황금시대를 창조하였다. 일본(日本) 추고여왕시대(推古女王時代) 력(曆)의 제정(制定) 및 불교사원(佛敎寺院)의 건축(建築)등 정교상(政敎上)에 신기원(新紀元)을 이룩한 구호태자(厩戶太子)(성덕태자(聖德太子))섭정(攝政)에 있어서 구호태자(厩戶太子)는 고구려 승(高句麗 僧) 혜자(慧慈)와 유교학자(儒敎學者) 백제인(百濟人) 각가(覺加) 백제승(百濟僧) 관륙(觀勒)(천문지리서(天文地理書)와 력본(曆本))을 가지고 감(甘)을 스승으로 하여 배웠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선진(先進)에 있었던 백제문화(百濟文化)의 유적(遺蹟)은 삼국통일(三國統一)의 전화에 많이 소실되고 인멸되어 남은 것이 많지 않다. 부여의 부소산 성지(城址)와 사지(寺址) 능산리(陵山里)의 능묘(陵墓)가 있고 익산 미륵사지의 절터와 더불어 한국 최고최대(最高最大)의 석탑(石塔)과 석등 등 유물(遺物) 및 부여 정림사지(定林寺址)의 오층석탑(五層石塔)과 서산지역의 마애불 및 와당 불상(佛像) 석조(石槽) 고분 등(古墳 等)이 남아 있다 이러한 백제문화(百濟文化)는 조화(調和)에 있어서나 기술에 있어서나 그 부드럽고 인간적이며 온화한 멋이 삼국 중(三國中)에 으뜸이었다.

이러한 유적유물(遺蹟遺物)은 보존(保存)에 있어서는 학술적 조사(學術的 調査)가 선행(先行)되고 착실한 연구(研究)가 이룩된 후에 세심한 유의와 감흥있는 정성으로 슬기있는 조화(調和)를 깨트리지 않도록 보수 정화되어야 한다.

신라의 유적(遺蹟)은 외형(外形)의 실체(實體)를 많이 볼 수 있다면 백제(百濟)의 유적(遺蹟)은 사색과 감흥의 생각을 깊이하고 대하여야 할 것이다. 기간(其間)에 공주사범대학(公州師範大學), 공주교육대학(公州教育大學)과 충남대학교(忠南大學校) 및 이리의 원광대학과 부여 공주의 박물관(博物館)에서 백제문화(百濟文化)에 대한 조사연구(調査 研究)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신라(新羅)는 반도(半島)의 동남(東南)에 위치하여 외래문화(外來文化)의 수용은 삼국 중(三國中)에 가장 늦었지만 고유(固有)한 개성을 지니고 독특한 창의를 발휘하여 그 문화(文化)의 유적(遺蹟)과 유물(遺物)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통일전(統一前)의 유적(遺蹟)과 유물은 경주(慶州)들에 있는 거대한 고분(古墳)과 월성 궁지(月城 宮趾)와 황룡사지(皇龍寺址)와 분황사석탑(芬皇寺石塔)과 첨성대와 남산(南山) 배리 삼존석불(拜里 三尊石佛) 생의사(生義寺)의 삼존불(三尊佛)등이 있으며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사이의 고분출토유물(古墳出土遺物)로서 금관(金冠)요패 및 수식, 곡옥, 목거리, 귀고리, 금잔은잔, 유리잔 유리병 등과 무기류(武器類) 마패류(馬貝類) 동기토기(銅器土器) 칠기 등은 고신라(古新羅)의 높은 문화(文化) 수준을 증명하는 동양미술사의 보배들이다.

신라의 적석목관분(積石木槨墳)은 그 구조의 안전성 때문에 오늘까지 유물을 온전히 전하고 있으며 아직도 수많은 원형고분이 남아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신라의 문물을 실감있게 전해준 위대한 박물관들이다. 특히 고신라(古新羅) 그림 한 장을 대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1973년 천마총(天馬冢)에서 마구의 장니(障泥)에 그린 비천백마도(飛天白馬圖)는 저 고구려 벽화고분에 힘차게 생동하는 신필의 경지에 신라도 이르렀음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1973년부터 시작한 경주종합 보수정화계획(慶州綜合 補修淨化計劃)에 따라 황남동(皇南洞)에 있는 수 백 채의 민가를 철거하고 대릉원(大陵苑)이 조성되었으며 월성(月城)주위의 민가를 헐고 유적(遺蹟)을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 사업과 천마총(天馬冢) 第98號 고분(古墳) 등(等) 많은 대소고분(大小古墳)의 발굴(發掘)이 실시되고 또 안압지(雁鴨池) 발굴(發掘)은 그 성과(成果)가 매우 컸으며 1977년 현재(現在) 황룡사지(皇龍寺址)의 발굴(發掘)이 진행(進行)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발전과 더불어 도시(都市)의 팽창에 따라 민가의 건축과 특히 시멘트의 사용으로 인한 구조물의 영구화와 기초의 조성 및 대형화가 더욱 가속될 것인바 토지이용계획을 문화적(文化的) 측면에서 보존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더욱 파괴가 예상되는 민가의 주택지를 밀어내고 역사적 유적의 적정한 보존과 정화는 시대가 갈수록 방대한 예산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는 획기적인 계획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유적은 면밀한 조사가 선행된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외형적인 조사를 기초로 하여 실시하면서 조사연구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오늘의 여건이 경주를 손대기에 충분한 전문가와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專門家)가 이 일에 참여한 것이다. 경주 고분(慶州 古墳)의 발굴결과 고(古)신라 문화사(文化史)의 새로운 국면과 자주적 역사관(自主的 歷史觀)의 정립에 기여한 것은 크고 우리의 문화사(文化史)를 우리가 규명한 역사적 사업이었다. 사실 1945년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관과 군대는 물러갔지만 황국사관(皇國史觀)에 의하여 쓰여진 신라문화사와 고고학의 여러 보고서는 그대로 남아 한국의 교과서를 위시한 여러 학술 서적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다. 1916년 경주(慶州) 제100호분(號墳)(김총(劍塚))과 보문리 부부총(普門里 夫婦塚)을 발굴한 금서룡(今西龍)의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第3권이나 1918년 보문리 고분(普門里 古墳)을 발굴한 원전숙인(原田淑人)의 대정(大正) 7년도(年度) 고분조사보고서(古墳調查報告書) 1920년 양산(梁山) 第10號(부부총(夫婦塚))을 발굴한 빈전경작 매원말치(濱田耕作 梅原末治)의 경주금관총(慶州金冠塚)과 그 유보 고분조사특별보고(遺寶 古墳調查特別報告) 第 3책(冊) 1922년 경주(慶州) 第133號(마총(馬塚))을 발굴한 매원말치(梅原末治) 1924년 경주(慶州) 第126號(식리총(飾履塚)) 127號(김령총(金

鈴塚))을 발굴한 매원말치(梅原末治)의 대정(大正) 13년 고분조사보고(古墳調査報告) 第1책(冊) 1926년 경주(慶州) 第126號(단봉총(端鳳塚))을 발굴한 소천현부(小泉顯夫), 1931년 경주(慶州) 第82號 83號를 발굴한 유광교일(有光敎一)의 소화(昭和) 6년도(年度) 고분발굴조사보고서(古墳發掘調査報告書) 第1책(冊) 1932년 경주(慶州) 충효리(忠孝里) 1號부터 10號까지를 발굴한 유광교일(有光敎一)의 소화(昭和) 2년도(年度) 고분조사복(古墳調査報告) 第2책(冊) 1933년 경주(慶州) 第16호분(號墳)과 로서리고분(路西里古墳) 및 경주(慶州) 第54호분(號墳)을 발굴(發掘)한 일유광교(一有光敎)의 소화(昭和) 8년도(年度) 고분조사 개보와 고고학(考古學)7-6號에 실린 「신라금제이식(新羅金製耳飾)의 최근출토예(最近出土例)에 대하여」 1934년 경주(慶州) 第14號 第109號墳을 발굴한 재등충(齋藤忠)의 소화(昭和) 9년도(年度) 고분조사보고(古墳調査報告) 1936년 경주황오리(慶州皇吾里) 도굴분을 발굴 정리한 재등충(齋藤忠)의 소화(昭和) 11년도(年度) 고분조사(古墳調査)보고서 등(等)이 일제시의 경주 고분 발굴이다.

특히 동양고분유물(東洋古墳遺物)의 지보적(至寶的)인 금관총금관(金冠塚金冠)에 있어서도, 그 형태가 완전히 출토되는 상태마저 잘 모르게 비전문가(非專門家)가 끄집어내었으며 소위 말한 금관과 내관 조익형 관식을 한 금관으로 끼어 맞추워 큰 오류를 범하였고 이는 1973년 천마총(天馬塚) 발굴이전까지는 빈전경작(濱田耕作)과 매원말치(梅原末治)의 보고서를 따라 우리 나라 모든 교과서가 그렇게 믿고 썼던 것이다. 더구나 금관총 등은 파괴고분이었으니 1926년 소천현부(小泉顯夫)는 완전한 신라 왕릉(王陵)을 발굴한다고 하여 서봉총(瑞鳳塚)을 발굴하고는 정치적 쇼만 연출하고 금관 등 중요한 유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으나 보고서(報告書)도 남기지 않고 자기 혼자만 보고 말았던 것이니 이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때 보고서가 나왔다면 이미 서봉총금관(瑞鳳塚金冠)으로 하여 금관총금관(金冠塚金冠)의 오류정도는 지적할 수 있었다. 은그릇에 년호가 새긴 글자가 나왔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해방후 박물관 유물정리과정에서 이홍식 박사(李弘植博士)에 의하여 그 보고가 되었던 것이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다. 또한 보고서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진 몇장 수록하거나 실측도도 없거나 설명도 간단한 것이어서 불충분하기 이를 데 없었으니 만일에 일본(日本) 본국의 왕릉(王陵)을 파고 그렇게 처리했다면 발굴한 학자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비교해 보면 신라고분에 대한 그들의 배려가 자기나라 조개 무덤 하나만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발굴에서 고신라의 고분(古墳)축조 구조와 부인(夫人)도 금관을 남자와 같이 쓰는 사실과 장신구의 사용위치나 외화의 높은 수준과 외국과 문물교류와 용관묘 석곽묘 등의 새로운 사실과 고분(古墳)의 연대(年代)및 공예기술과 무기 등 여러 분야에서 고신라문화(古新羅文化)의 독특한 창의성을 찾아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세대에는 이제 고(古)신라의 완형고분을 더 손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신라최대(新羅最大)의 황룡사지(皇龍寺址)를 발굴함으로써 하여 고(古)신라 건축 예술의 많은 의문점이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유적은 그 터를 잘 보존하는 일이며 철저한 학술적 조사연구가 실시되지 않고는 그 터에 새로운 복원이나 보수나 정확히 하는 사업은 실시될 수 없다. 가야 문화(文化) 유적은 아직도 많은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으로 조사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신라(統一新羅)는 삼국(三國)이 제마다 개성있는 문화를 발전시켜 온지 700여 년이 지나서 하나로 결합되면서 완전한 민족문화의 고전이요 황금시대(黃金時代)를 열었다.

고구려(高句麗)의 웅휘하고 강인한 힘의 문화(文化)와 백제(百濟)의 온화하고 현란한

조화(調和)의 문화(文化)가 신라(新羅)의 독특한 개성(個性)과 고유한 터전에 융합되어 생동(生動)하는 힘과 조화적(調和的)인 미(美)와 사색의 이상(理想)을 함께 가진 창조적 문화로 발전시켰다. 동양불교미술(東洋佛教美術)의 최대 걸작이며 절정인 석굴암 석굴(石窟庵 石窟)의 석조조각과 불국사 불탑(佛國寺 佛塔)이며 청운교 백운교의 특출한 구상(構想)과 봉덕사(奉德寺)의 신종(神鐘)이며 안압지(雁鴨池)의 조원(造苑)과 능묘(陵墓) 조각과 전국(全國)에 산재(散在)한 석탑(石塔), 불상(佛像), 석조물(石造物), 와당, 문양 전 토기(文樣埴土器)등의 유적(遺蹟)과 유물(遺物)이 수많이 남아 있다. 불국사(佛國寺)·석굴암 무열왕능 김경신장군묘역등(金庚信將軍墓域等)이 보수(補修) 복원 정화되었다. 그리고 전국(全國)에 산재(散在)한 신라석탑 불상(新羅石塔 佛像)등 석조(石造) 예술품이 보수 보존되고 있다.

신라문화(新羅文化)의 핵심이 되는 전당으로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이 1975년에 완공(完工)되어 신라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시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연구조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975년에 안압지(雁鴨池)를 발굴한 결과 통일(統一)신라(新羅)문화(文化)의 한 지하(地下)창고를 연 것과 같이 수많은 유물이 출토(出土)되었다. 이 발굴조사 보고서와 유물의 연구는 신라 통일문화의 새로운 한 장을 밝힐 것이다. 우리는 전국(全國)에 산재(散在)한 석탑이나 석불 등(石佛 等) 통일신라문화 유산(遺産)에 대하여 외형(外形)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보수나 주위 환경미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가장 세심한 유의를 할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아니한 지하(地下)의 유구(遺構)를 보존하는 일이다 사지(寺址)나 고분(古墳), 건물지(建物址), 요지(窯址), 원지(苑址), 성지(城址) 등의 원형을 잘 보존하여 착실한 조사연구가 끝난 후에 이에 대한 보수나 미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적의 파괴만이 일어난다. 통일신라문화(統一新羅文化)의 유적 중에 목조 건물(木造 建物)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고려문화(高麗文化)는 통일신라문화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성과 외래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고려 목조건물(木造建物)은 부석사(浮石寺)의 무량수전과 조사당(祖師堂) 수덕사(修德寺)의 대웅전(大雄殿) 강릉 객사문(江陵 客舍門) 및 봉정사(鳳精寺)의 팔각구속석탑(八角九屬石塔)등 많은 석탑(石塔)과 연곡사(燕谷寺)의 부도(浮屠)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 정토사 흥법국사실상탑(淨土寺 弘法國師 實相塔) 대안사 광자대사탑(大安寺 廣慈大師塔) 현화사 석등(玄化寺 石燈) 등 자랑찬 것이 많다. 더욱이 고려 청자문화는 그 모국(母國)인 중국(中國)을 능가하여 세계 도자사(世界陶磁史)에 빛나는 한 장을 열었다.

팔만대장경의 목각기술이나 고려 금속활자의 발달과 공예기술 및 회화 서예 등에도 놀랄만한 업적들이 많았다. 고려문화는 통일신라 문화의 계승에 있어서는 다소 퇴화되었고 때로는 고려인의 독창적인 시대성이 가미되어 찬연한 창조의 국면도 있었다.

우리 나라의 최대 최고(最大 最古)의 건축예술품으로 일컬어지는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과 그 절경 내는 봉황산(鳳凰山)의 자연(自然)과 더불어 옛스러운 운치를 깨뜨리지 않게 잘 보수 복원 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해인사에 보존된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의 보존(保存)에 대하여도 철저를 기할 것이며 강진 부안 등 고려 청자도요지는 원형의 보존과 관리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고려의 불상이나 석탑 등 여러 단위 문화재에 대해서 그 보존에 세심한 배려를 기하고 있으며 원형의 손상이 없도록 보수를 거듭하고 주위환경의 자연 보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 문화유산(文化遺産)은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고려가 귀족적이고 불교적인 문화(文化)라면 조선문화(文化)는 실질적이고 소박한 유교적 문화(文化)이다. 서울 오대궁(五大宮)을 위시한 왕궁건물(王宮建物) 및 전국(全國)에 산재한 사찰(寺刹), 서원(書院), 향교(鄕校), 누각(樓閣), 민가(民家)등 수많은 목조건물(木造建物)이 있고 정교하고 운치있는 홍교(虹橋)며, 원각사 석탑 석빙고(圓覺寺 石塔 石氷庫)등이 있다. 특히 조선시대 미술(美術)을 대표(代表)하는 백자는 순수한 우리 민족성의 표현이다.

조선시대문화(朝鮮時代文化)의 가장 위대한 창조는 세종대왕시대의 한글창제와 측우기 등 과학의 발달이며 아악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일대 창업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민족문화의 계승창달의 터전으로 세종대왕 능력이 규모있게 보수 정화되고 세종전(世宗殿) 등 건물이 신축되어 기록화와 유물 등이 전시되었다. 국문학의 부문에 있어서는 장가(長歌)의 정철(鄭澈)선생과 단가(短歌)의 윤선도(尹善道)선생의 유적이 대표적인 것인바 이의 보존이 이루어 질 것이며 조선시대 예술가의 유적도 잘 보존되어 갈 것이다. 한국 서예사의 대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秋史 金正喜 先生)의 고택도 운치있게 보수 되었으며 민속의 생활용구까지 전시되어 있다.

백자문화의 본거지인 공주 도요지는 계속 보존 조치를 가하고 있고 기타 분청사기와 백자도 요지도 보존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여러 전적 분야는 양도 많고 서지학적 부문의 전문가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등록의 절차를 거쳐서 보존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건축·회화·서예·공예·미술품 및 음악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연연한 개성이 스며 흐르고 있으며 그 유적 유물(遺蹟 遺物)의 양(量)도 다대(多大)하여 전부(全部)를 보존해 가기에는 힘겨운 바가 많다. 그러기에 조선시대 문화재 중(文化財中)에서는 분야마다 선별의 가치를 따져서 국가가 보존(保存)할 대상과 지방(地方)이 보존할 대상 및 향토의 주민 스스로가 보존할 대상으로 나누어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모두를 보존할 수가 없다.

건물(建物)에 있어서는 임진란(壬辰亂)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후의 시대적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전의 고건물(古建物)은 대개가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보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각 분야의 것들이 그 가치를 하나 하나의 조사 검토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보존되게 되어 있다.

동산(動産)의 문화재(文化財)는 학술적 또는 해외유출의 방지를 위한 등록을 실시하고 고유한 민족의 개성과 생활(生活)관습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국의 민속종합조사(民俗綜合調査)가 실시되어 경남(慶南)·경북(慶北)·전남(全南)·전북(全北)·강원(江原)·충남(忠南)·충북(忠北)·제주(濟州)의 방대한 9책의 조사보고서(調查報告書)가 8년간(年間)에 간행되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의 보존에 있어서 한국의 음악 등 집대성한 음반이 제작되고 기능 보유자의 보호 육성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수려한 국토의 자연도 민족문화(民族文化)의 모태(母態)임으로 설악산 한라산 홍도 등 자연조사를 전국의 전문학자를 동원하여 실시하고 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다. 특히 자연보호(自然保護)의 정부정책에 따라 금수강산의 보존에 아울러 힘을 기울이며 자연(自然)의 원형을 보존하는 사업을 계속 실시할 것이다. 조선시대의 건물보존(建物保存)에는 많은 예산과 기술과 시일이 소요된다. 이는 급한 것부터 년차적(年次的)으로 보수해 갈 것이며 원형의 보존에 각별한 유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기술자와 학예연구직(學藝研究職)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미술

품(美術品)은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문화(民族文化)의 핵심전당이다. 그러기에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 전반에 걸친 유물(遺物)이 전시(展示)되어 있다.

1976년부터 전남 신안 앞 바다에서 발견된 원(元)나라 무역선의 해저 발굴이 진행 중인데 이는 중국도자사(中國陶磁史)를 밝히는 세계적(世界的) 발굴사업이다. 우리는 우연히 발견된 중국(中國)배의 발굴로 인하여 세계에서 몇 째가는 중국 도자국가(中國陶磁國家)가 되어 동양문화(東洋文化)연구의 크나큰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문화의 계승을 지니고 있는 문화의 가치와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전통의 인자로서 계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맺는말

우리는 오늘 무주체(無主體)의 외화주의(外化主義)를 배격하고 주체적 자아확립(主體的自我確立)을 부르짖는 시대(時代)에 살고 있다. 회랍의 델피아 신전(神殿)에 있는 「너 스스로를 알라」 하던 유명(有名)한 말이나 유교(儒敎)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이나 불교(佛敎)의 「자각각타(自覺覺他)」를 되새기며 민족(民族)의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해 가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적 민족사(主體的民族史)의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는 일은 많은 노력과 수많은 학자와 이를 체득한 국민(國民)이 연결되어야 한다. 먼저 일본인(日本人)들이 써놓은 한국문화사(韓國文化史)의 여러 보고서와 논문(論文)을 과학적(科學的)인 연구로 이를 바로잡고 민족사(民族史)의 본모습으로 하나하나 연구된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민족문화사(民族文化史) 부문의 조사 연구하는 사람을 과감하게 길러야 한다. 이제 우리의 경제가 이러한 인적자원을 대우하고 민족의 정신적 중추를 이루워 나갈 계층의 육성과 시대마다 부분(部分)마다 연구된 문화사(文化史)의 정립이 있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우리는 전국의 호국선현유적(護國先賢遺蹟)에서 국난극복(國難克服)의 생생한 역사적(歷史的) 현장을 보면서 조국(祖國)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소명을 받을 것이다. 조국수호의 주체적 사상을 체득하고 민족의 긍지를 느끼며 가슴 찡하는 무언(無言)의 교시(敎示)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민족사상(民族思想)이나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창달계승에 있어서는 긍정과 부정의 비판적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퇴계선생(退溪先生)이나 율곡선생(栗谷先生)의 철학이나 학문사상을 모두 그대로만 받아드린다면 발전이 아니라 후퇴이다. 신라의 집이나 조선시대 건축을 창조없이 모조만 한다면 건축문화사(建築文化史)의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전통의 인습(因襲)속에 들어있는 민족(民族)의 창조적 생명소를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고 전통속에 스며 흐르는 슬기의 혈맥을 찾아 오늘의 창조에 연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전통의 가치 속에서 미래의 창조적 구현에 연결되는 가치를 연구하고 외형적(外形的)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主體的) 개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체득(體得)된 전문가(專門家)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조란 전통(傳統)의 체득된 터전 위에 선진 외래문화(先進外來文化)를 주체적(主體的)으로 수용하여 이 시대(時代)의 우리 민족개성(民族個性)으로 복합 생성(生成)하여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통

의 체득을 이룩하게 하는 일인바 이는 문화재관리정책(文化財管理政策)의 최상(最上)의 목표이다. 그러기 위하여 원형을 보존시키고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전시(展示) 보급 선양 사업을 하는 것이다. 문화(文化)는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 몸의 전세포가 일초만 생성(生成)을 중단한다면 죽고마는 것과 같이 문화는 시대(時代)와 풍토와 민족(民族) 개성에 따라 죽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필요한 세포는 생성되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이 흘러가는 문화 속에 과거에 정진된 문화(文化)의 모습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창조(創造)의 재료가 되는 터전을 만들고 민족의 개성을 잃지 않게 우리의 흘러온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업이 전통적 민족문화(傳統的 民族文化)의 계승 사업이다.

參考文獻

- 金 富 軾 著 三國史記
 一 然 著 三國遺事
 丹齋申采浩全集(丹齋申采浩先生 記念事業會)
 李 丙 燾 百濟學術 및 技術의 日本傳播
 (忠南大學校 百濟研究 제2집)
 趙 芝 蕪 著 韓國文化史序說
 金 元 龍 著 韓國美術史
 金 元 龍 著 韓國 古史개설.
 李 烟 錫 著 壬辰戰亂史
 震 檀 學 會 韓國史
 鄭 在 鏞 著 慶州文化財管理의 現況과 展望(月刊文化財 11號)
 武 寧 王 陵 (文化財管理局)

한국유적발굴조사년표(韓國遺蹟發掘調查年表)

1916年~1977年

年·月·日	발굴유적명(發掘遺蹟名)	발굴자(發掘者)	보고서(報告書)
1820~1821	진흥왕순수비 조사 (眞興王巡狩碑 調査)	김정희, 조인영 (金正喜, 趙寅永)	예당금석과안록, 승가사방비기 (禮堂金石過眼錄, 僧伽寺訪碑記)
1916	경주 제100호분(검층) (慶州 第100號墳(劍塚))	금 서 룡 (今 西 龍)	조선고적도보 (朝鮮古蹟圖譜)
1917	함안 제5호 제34호 고분 (咸安 第5號 第34號 古墳)	“	대정 6년도 고분조사보고서 (大正 6年度 古墳調査報告書)
“	선산낙산동 제28호분 (善山洛山洞 第28號墳)	“	“
“	서울 석재동 제1호분 (서울 石材洞 第1號墳)	곡정제일 (谷井濟一)	“
“	능산리 2호, 5호분 (陵山里 2號, 5號墳)	“	“
“	익산군 대왕릉과 소왕릉 (益山郡 大王陵과 小王陵)	“	“
“	나주 덕산리 4호(옹관) (羅州 德山里 4號(甕棺))	“	“
“	나주 신림리 4호(옹관) (羅州 新林里 4號(甕棺))	“	“
1918	경주 보문리 고분 (慶州 普門里 古墳)	원전숙인 (原田淑人)	대정 7년도 고분조사보고서 (大正 7年度 古墳調査報告書)
“	성주 1호, 2호, 6호 고분 (星州 1號, 2號, 6號 古墳)	빈진경작 (濱田耕作)	“
“	고령 지산동 1호, 2호, 3호분 (高靈 池山洞 1號, 2號, 3號墳)	매원말치 (梅原末治)	“
“	창녕 교동 21호, 31호분 (昌寧 校洞 21號, 31號墳)	“	“
1920	양산부부총 (梁山夫婦塚)	마장시랑 (馬場是郎)	고적조사 특별보고서 제5책 (古蹟調査 特別報告書 第5冊)
	경주 입실리 청동기일괄발견 (慶州 入室里 靑銅器一括發見)	소천경길 (小川敬吉)	
1920	김해 패총 (金海 貝塚)	“	“
1921	경주 금관총 (慶州 金冠塚)	빈진경작 (濱田耕作)	경주금관총과 그 유보 (慶州金冠塚과 그 遺寶)
		매원말치 (梅原末治)	고적조사특별보고 제3책 (古蹟調査特別報告 第3冊)

年·月·日	發掘遺蹟名	發掘者	報告書
1922	경주 마총 (慶州 馬塚)	梅原末治 등전량책 (藤田亮策) 소천현부 (小泉顯夫)	1955년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고적조사보고서 제1책 (古蹟調査報告書 第1冊) 경주로서리 쌍상총 138호 고적조 사보고서(慶州路西里 雙床塚 138 號 古蹟調査報告書)
1923	달서 34호, 37호, 50호, 51호, 55 호, 59호, 62호분(達西 34號, 37號, 50號, 51號, 55號, 59號, 62號墳)	小泉顯夫 야수 건 (野守 健)	대정 12년도 고적조사보고서 제1 책(大正 12年度 古蹟調査報告書 第1冊)
1924	경주 식이총, 금령총 (慶州 飾履塚, 金鈴塚)	매원말치 (梅原末治)	대정 13년도 고적조사보고서 제1 책 「경주 금령총 식이총 발굴조사 보고」(大正 13年度 古蹟調査報告 書 第1冊 「慶州 金鈴塚 飾履塚 發 掘調査報告」)
1926	경주 서봉총(慶州 瑞鳳塚)	소천현부 (小泉顯夫)	보고서미간 경주 서봉총발굴(사학 잡지에 잡문으로 씀)(報告書未刊 慶州 瑞鳳塚發掘(史學雜誌에 잡문 으로 씀))
1929~1931	웅기 송평동패총 (雄基 松坪洞貝塚)		
1931	慶州 82號, 83號	유광교일 (有光敎一)	소화 6년도 고적발굴보고서 제1책 (昭和 6年度 古蹟發掘報告書 第1冊)
1931	낙랑채협총(樂浪彩篋塚)	“	
1932	경주 충효리 1호-10호분 (慶州 忠孝里 1號-10號墳)	有光敎一	소화 7년도 고적발굴보고서 제2책 (昭和 7年度 古蹟發掘報告書 第2冊)
1933	경주 16호분과 노서동 215번지 고분(慶州 16號墳과 路西洞 215 번지古墳)		고고학 7-6 「신라 금제이식 최근의 출토례에 대하여」(考古學 7-6 「新羅 金製耳飾 最近의 出土例에 대하여」)
1933	慶州 54號墳	有光敎一	고적조사개요 소화 8년도 황오리 제54 호분 갑2총(古蹟調査概要 昭和 8年度 皇吾里 第54號墳 甲2塚)
1933	공주 송산리 벽화분 발견 (公州 宋山里 壁畫墳 發見)		
1934	慶州 第15號 第109號墳	재등충 (齋藤忠)	소화 9년도 고적조사보고 제1책 (昭和 9年度 古蹟調査報告 第1冊)
1936	경주 황오리 및 충효리 무명분 (慶州 皇吾里 및 忠孝里 無名墳)	“	昭和 11年度 古蹟調査報告書 소화 13년도 고적조사보고
1938	나주 반남면 덕산리 2호, 3호 5호 (翁官)(羅州 潘南面 德山里 2號, 3號 5號(甕棺))	“	昭和 13年度 古蹟調査報告 「나주 반남면 고분의 발굴조사」 (羅州 潘南面 古墳의 發掘調査)

年・月・日	發掘遺蹟名	發掘者	報告書
1939	신촌리 6호, 7호(옹관) (新村里 6號, 7號(甕棺)) 흥덕리 석총(興德里 石塚) 대구 동촌동 1호, 2호 (大邱 東村洞 1號, 2號) 신지동 남 1호, 2호 (新池洞 南 1號, 2號) 新池洞 北 2號, 7號, 8號 나주 반남면 고분 5기 (羅州 潘南面 古墳 5基) 경주 고영소재 고분 4기 공주읍 금성동 고분 4기 (慶州 高靈所在 古墳 4基) 公州邑 錦城洞 古墳 4基)	재등충 (齋藤忠) “ “ “	소화 13년도 고적조사보고 昭和 13年度 古蹟調査報告 「대구부부근(大邱府附近)에 관 한 고적(古蹟)의 조사」 昭和 14年度에 관한 조선고분 조 사의 개요(朝鮮古墳 調査의 概要) 고고학잡지 30(考古學雜誌 30)
1940	집안 무용총조사 (輯安 舞踊塚調査)		
1941	진파리 벽화분(眞坡里 壁畫墳)		
1946	慶州 호우총, 은령총	국립박물관 김재원 (國立博物館 金載元)	국립박물관 고분조사보고서 제1책 (國立博物館 古墳調査報告書 第1冊)
1947	개성 법당방 고려고분 (開城 法堂坊 高麗古墳)	國立博物館	
1949	慶州 51號, 52號墳	“	
1949	라진 초도 원시유적	북한(北韓)	
1949	안악(安岳) 1號, 2號, 3號墳(3號 墳은 동수분(冬壽墳) 백화고분)	“	
1950	용강(龍岡) 궁상리 주거지	“	
1952	慶州 17號墳	國立博物館	
1952	경북 월성 금척리 고분 (慶北 月城 金尺里 古墳)	國立博物館 金載元	
1953	경주 쌍상총(慶州 雙床塚)	“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서 제2책 경주 노서리 쌍상총 마총 제138 호 조사보고(慶州 路西里 雙床塚 馬塚 第138號 조사보고)
1953	평남 순천군 요동성 古墳	北韓	
1953~1957	원산시 중평리 청동기 유적(遺蹟)		
1955	慶州 32號墳	진홍섭 (秦弘燮)	미술자료 제2호, 경주 황오리 고분 발굴조사 약보고(美術資料 第2號, 慶州 皇吾里 古墳發掘調査 略報告)

年·月·日	發掘遺蹟名	發掘者	報告書
1954~1955	회령 오동(會寧 五洞) 청동기 유적	북한(北韓)	
1954	황주군 순천리 청동기 유적	“	
1954	운성리 토광묘 유적	“	
1954	은산 남옥리 고구려 무덤	“	
1954	대청리 1號 고구려 무덤	“	
1954	평양 역전 고구려 무덤	“	
1955	평양 금탄리, 원암리, 강계 공귀리, 중강군, 전천읍, 황주군 원추리 용강군 대안리 유적	“	
1956	청진 농포리 선사 유적 사리원 상매리 청동기 유적 은파군 갈현리 고조선 유적 대동군 화성리 고구려 고분 증산군 가장리 고구려 고분 개풍군 고려 공민왕능	“	
1957~1963	울릉도 조사(調査)	國立博物館	울릉도
1957	봉산군 지탐리 신석기시대 유적 강서군 대성리 유적(청동기 고조선 고구려)	北韓	
	박천군 덕성리 전분(塼墳)	“	
1958	시중군 섬귀리 청동기 유적 용강군 석천산 지식묘	“	
	봉산군 은파군 황주군 청동기 및 고조선 유적	“	
1958	봉산군 봉산읍 선사주거지 봉산군 송산리 고조선유적 신창군 하색동리 고조선유적 함경남도 전역의 세형동검유적 강서군 약서리 고구려 벽화고분 강서군 대서리 고구려고분		
1958~1961	평양 대성산 일대 고구려 유적		
1958	용천군 구읍리 신라고분	北韓	
1959	감은사지(感恩寺址)	國立博物館	감은사(感恩寺)
1959~1964	용천패총(龍川貝塚)	고려대학교김연학(高麗大學校金延鶴)	용천패총연구(熊川貝塚研究)
1959	연산 신흥리 백제고분(連山 新興里 百濟古墳) 발견보고 의주군 미송리 신석기 및 초기 철기시대 유적	윤무병(尹武炳) 北韓	백제문화 7,8호(百濟文化 7,8號)

年·月·日	發掘遺蹟名	發掘者	報告書
	용면군 석교리 청동기 유적 안악군 복사리 청동기 유적 황주군 심촌리 지식묘 연산군 공포리 청동기및 고구려 유적 재령군 부덕리 토광묘 평양시 만경대리 고조선 유적 자성군 일대 고려고분 안악군 복사리 벽화고분 중화군 무진리 벽화고분 황해도 평선군 봉암리 고려청 자 묘지		
1960	慶北 義城 담리고분 (慶北 義城 塔里古墳)	國立博物館 윤 무 병 (尹 武 炳)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서 제3책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書 第3冊)
1960	영암군 내동리 7호 (靈岩郡 內洞里 7號)	國立博物館 김 원 룡 (金 元 龍)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書
1960	웅기 굴포리 조개무덤 해주 용당리 조개무덤 대동군 팔청리 고구려 벽화고분	북한(北韓)	
1961	울릉도 현포동(玄圃洞) 1號 천부동(天府洞) 1,2,3號	國立博物館 金 元 龍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書
1961	수석리(水石里) 집자리	金 元 龍	수석리선사시대 취락주거지 조사보고 (미술자료 11호)(水石里先史時代 취락 주거지 調查報告(美術資料 11號))
1961	삼광리 고분군(三光里 古墳群)	國立博物館	
1961	박천군 영변 선사유적 철원군 내문리 고려고분	北韓	
1962	경주 4,5호 고분 (慶州 4,5號 古墳)	홍은준,김경 기(洪恩俊, 金正基)	발굴조사보고(發掘調查報告)(國立 博物館 고적조사보고서 第5冊)
	제천 황석리 고인돌 (提川 黃石里 古인돌)	國立博物館 尹 武 炳	한국지석묘연구(韓國支石墓研究)
1962	춘천 교동 혈거지 (春川 校洞 穴居地)	金 元 龍	역사학보21집 춘천 교동 혈거유적과 유물(春川 校洞 穴居遺蹟과 遺物)
	칠곡군 인동면 황상동 유적 (漆谷郡 仁洞面 黃桑洞 유적)	김영하, 윤 용 진(金英 夏, 尹容鎭)	인동 불로동(仁洞 不老洞) 고령고 아동 고분발굴조사보고서(古墳發 掘調查報告書)
1962	함북 화대군 장덕리 선사유적 (mamots 유골 발견)	北韓	

年·月·日	發掘遺蹟名	發掘者	報告書
1963	평북 영변군 세축지 신석기시대부터 고조선시대까지의 유적 경주 월성군 내남면 배리 전신덕왕능(慶州 月城郡 內南面 拜里 傳神德王陵) 벽화고분, 발견	북한(北韓) 박일훈 (朴日薰)	미술자료 제8집(美術資料 第8集)
1963	나주 신창리 옹관묘 (羅州 新昌里 甕棺墓) 강화도, 파주 지식묘 (江華島, 坡州 支石墓) 고령(高靈) 벽화고분	김원룡 (金元龍) 윤무병 (尹武炳) 金元龍, 김정기(金正基)	신창리옹관묘지(新昌里甕棺墓地) 한국지석묘연구(韓國支石墓研究) 고령벽화고분조사보고 (한국고고2(韓國考古2))
1963~1964	조탑동 고분(造塔洞 古墳) 굴포리 구석기 유적 (屈浦里 舊石器 遺蹟)	진홍섭 (秦弘燮) 北韓	조탑동고분발굴보고 (造塔洞古墳發掘報告)
1964	경주 145호 고분 (慶州 145號 古墳) 공주 석장리 구석기시대 유적 (公州 石壯里 舊石器時代 遺蹟) 농소리 패총(農所里 貝塚)	홍은준, 김정기(洪恩俊, 金正基) 연대손보기(延大孫寶基) 부산대 김용기(釜山大 金龍基)	국립박물관 고분조사보고서 제5책(國立博物館 古墳調查報告書 第5冊) 고미술(考古美術)6-3,4. 연세논총(延世論叢)8,9 농소리패총의 발굴조사보고 (農所里貝塚의 發掘調查報告)
	서울 가락동 유적 (서울 可樂洞 遺蹟) 풍납리 토성(風納里 土城)	윤세영 (尹世英) 金元龍	가락동 백제고분 1호,2호 발굴조사 약보고(고고학 3)(可樂洞 百濟古墳 1號,2號 發掘調查 略報告(考古學 3)) 풍납리 토성내 포함층 조사보고 (風納里 土城內 包含層 調查報告)
1964~1967	영일, 김해, 월성, 강화 파주의 지식묘(迎日, 金海, 月城, 江華 坡州의 支石墓) 신라 삼산 오악 조사 (新羅 三山 五岳 調查)	국립박물관 (國立博物館) 한국일보(韓國日報)신라 삼산오악조사단	한국지석묘연구(韓國支石墓研究)
1964~1966	부여 금강사지발굴 (扶餘 金剛寺址發掘)	윤무병 (尹武炳)	금강사(구전)(金剛寺(口傳))
1964~1977	강진 대구면(康津 大口面) 고려청자 도요지	최순우, 정양모(崔淳雨, 鄭良謨)	

年·月·日	發掘遺蹟名	發掘者	報告書
1964	경주 서악리 고분 (慶州 西岳里 古墳)	윤무병 (尹武炳)	경주 서악리 석실분 발굴보고(고고학 1)(慶州 西岳里 石室墳 發掘報告(考古學 1))
1964	대구 불로동고분 (大邱 不老洞古墳)	김영하(金英夏), 윤용진	인동 불노동(仁洞 不老洞) 고령고아 고분 발굴 조사보고
1965	경주 제1호 고분 (慶州 第1號 古墳)	김원룡 (金元龍)	문화재管理局 古蹟調查報告書 第2冊
1965	경주 분황사 석불군(慶州 芬皇寺 石佛群) 발굴(분황사 뒤 우물속)	金元龍	문화재관리국 고적조사보고서 제1책 「분황사 석불군」(文化財管理局 古蹟調查報告書 第2冊 「芬皇寺 石佛群」)
1965	慶州 第33號, 第34號墳 논산, 파주, 곡성, 승주지석묘 (論山, 坡州, 谷城, 昇州支石墓) 의성대리 고분(義城大里 古墳) 경주 황오리 고분군 (慶州 皇吾里 古墳群)	진홍섭(秦弘燮) 국립박물관 (國立博物館) 경희대학교 金元龍, 박일훈(朴日薰)	文化財管理局 古蹟調查報告書 第2冊 한국지석묘연구(韓國支石墓研究) 의성대리(義城大里)발굴조사보고서 文化財管理局 古蹟調查報告書 第2冊
1965~1966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 (仁川 景西洞 綠靑磁窯址)	김양수 (金良洙)	경서동 녹청자요지(경기문화연구 1집)(景西洞 綠靑磁窯址(경기文化研究 1集))
1966	慶州 35第, 60第, 151號墳 부산 다대동 패총 (釜山 多大洞 貝塚)	秦弘燮, 朴日薰 김용기 (金龍基)	文化財管理局 고적조사보고서 第1冊 다대포 패총발굴조사보고(부산대 사학 2)(多大浦 貝塚發掘調查報告(釜山大 史學 2))
“	강화, 창원, 청주 지석묘 (江華, 昌原, 淸州 支石墓)	國立博物館	한국지석묘연구(韓國支石墓研究)
“	서울 역삼동(驛三洞) 집자리	송전대(崇田大)	역삼동 주거지 발굴보고(사학연구 20)(驛三洞 住居址 發掘報告(史學研究 20))
“	익산 미륵사지	홍은준(洪恩俊)	백제미륵사지 발굴약보(고고미술 7-5)(百濟彌勒寺址 發掘略報(考古美術7-5))
1966	부여 백제窯址 정백동 사광묘 (貞柏洞 土壙墓)	國立博物館 북한(北韓)	
“	공주 장기면 시목동 고분 (公州 長岐面 柿木洞 古墳)	안승국 (安承國)	공주 시목동 고분조사약보(고고미술 8권)(公州 柿木洞 古墳調查略報(考古美術 8卷))
1967	慶州 18號, 37號, 古墳 “ 남해도서조사(南海島嶼調查)	金英夏 김원룡 (金元龍)	남해 도서고고학 (南海 島嶼考古學)

年·月·日	發掘遺蹟名	發掘者	報告書
1967	동래낙민동 패총 (東來樂民洞 貝塚)	국립박물관 (國立博物館)	
“	양산동 패총(梁山洞 貝塚)	“	
“	사천 구평리 패총 (泗川 舊坪里 貝塚)	정영호 (鄭永鎬)	사천 구평리 패총 조사약보(고고미술 8-8)(泗川 舊坪里 貝塚 調査略報(考古美術 8-8))
“	대전괴정동 청동기유적 (大田槐亭洞 靑銅器유적)	國立博物館	대전 괴정동 출토 일괄유물(고고학 2)(대전 槐亭洞 出土 一括遺物(考古學 2))
1967	창녕 계성리 고분 (昌寧 桂城里 古墳)	강인구 진홍섭	
1967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 (서울 岩寺洞 先史遺蹟)	전국 대학연합 발굴조사단(全國大學聯合發掘調査團)	암사동 강안 유적발굴보고(역사교육 13)(岩寺洞 江岸 遺蹟發掘報告(歷史教育 13))
1968	월성군 서면 방내리 고분군 (月城郡 西面 芳內里 古墳群)	강인구 지건길	
1968	경주 구황동 폐사지 발굴 (慶州 舊皇洞 廢寺址 發掘)	진홍섭 강인구	
1968	경주 보문리 석실분(慶州 普門里 石室墳)(도불고분)	박일훈 (朴日薰)	
1969	慶州 19號, 20號 古墳	경희대학교 엄영식	경희대학교 박물관 초간 제1책 「慶州 인왕동(仁旺洞) 19, 20號, 古墳發掘調査報告」
1969	경주 황용사지 발굴 (慶州 皇龍寺址 발굴)	진홍섭 강인구	
1969	부산 동삼동 패총 (釜山 東三洞 貝塚)	國立博物館	
“	해미 유적(海美 遺蹟)	“	
“	경남 사천 송지리 석관묘 (慶南 泗川 松旨里 石棺墓)	정영호 (鄭永鎬)	泗川 松旨里 석상식(石箱式) 古墳發掘調査概要(考古美術9-9)
“	서울 가락동 백제고분(可樂洞 百濟古墳)(흑도출토)	이홍직, 강인구, 윤세영	可樂洞 百濟古墳 第1號, 第2號墳 調査報告(考古學 3)
1969~1971	慶州 망덕사 절터 발굴	강인구,진홍섭,김정기	
1969~1971	공주서혈사지(公州西穴寺址)	김영배,안승주 (金永培,安承周)	公州 西穴寺址에 관한 조사연구 (百濟文化 5집)
1969	경산군 자인면 북사동 고분 (慶山郡 慈仁面 北四洞 古墳)	영남대학교 (嶺南大學校)	북사동 고분발굴조사 약기(신나가야문화 2)(北四洞 古墳發掘調査 略記(新羅 伽倻文化 2))

年·月·日	發掘遺蹟名	發掘者	報告書
1969	서산군 대산면 명지리 고분 (瑞山郡 大山面 明智里 古墳)	한병삼,김영배 (韓炳三,金永培)	대산면 백제사광묘 발굴보고(大山面 百濟土壙墓 發掘報告)(考古學 2)
“	불국사지 발굴 (佛國寺址 發掘)	김정기 (金正基)	불국사(문화재관리국) (佛國寺(文化財管理局))
“	강릉 초당동 유적 (江陵 草堂洞 遺蹟)	文化財管理局	江陵 草堂洞 第1號古墳(文化財 5)
1970	월성군 강동면 안계리 고분군 100기(月城郡 江東面 安溪里 古墳群100基)	강인구 지건길	
“	시도패총(矢島貝塚)	韓炳三	시도패총(矢島貝塚)(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8책)
“	동래복천동 고분군 (東萊福泉洞 古墳群)	文化財管理局 東亞大學校	동래 복천동 제1호고분 발굴보고서 東萊 福泉洞 第1號古墳 發掘報告書
1971	영주 순흥 벽화고분 조사 (榮州 順興 壁畫古墳 調査)	진홍섭 (秦弘燮)	고분벽화 신라어숙술간묘 발견의 의(古墳壁畫 新羅於宿述干墓 發 見意義)(梨大學報 447)
“	청양군 청남면 강진리 와요지 (靑陽郡 靑南面 江津里 瓦窯 址)	國立博物館	
“	서울 岩寺洞 先史遺蹟	文化財管理局	
“	공주군 기면 장암리 구석기 유적(공주군 岐面 壯岩里 舊 石器 遺蹟)	연세대학교박 물관(延世大 學校博物館)	
“	부산 동삼동 유적 (釜山 東三洞 遺蹟)	國立博物館	
“	公州 탄천면(灘川面) 남전리 古墳	“	
1971	강원도 소양강 수물지구 유적 발굴	이호관	소양강 팔당댐 수물지구유적 발 굴조사보고서
“	부산 동내 오윤대 고분군 (釜山 東萊 五倫臺 古墳群)	釜山大學 校博物館	五倫臺 古墳群 發掘報告(釜山大)
“	공주 무녕왕릉 (公州 武寧王陵)	김원룡 (金元龍)	무녕왕릉(문화재관리국) 武寧王陵(文化財管理局)
“	거창 둔마리(居昌 屯馬里) 고 려벽화고분	文化財管理局	거창(居昌)둔마리(屯馬里)벽화고분 및회곽묘(灰槨墓)발굴조사보고서
1972	공주군 탄천면 송학리 선사유 적(公州郡 灘川面 松鶴里 先 史遺蹟)	國立博物館	
1972	경기도 팔당댐 수물지구 유적 조사	이호관 연세 대학박물관	소양강 팔당댐 수물지구 유적조 사보고서(文化財管理局)

年·月·日	發掘遺蹟名	發掘者	報告書
1972	공주 장기면 장암리 구석기 유적(公州 長岐面 壯岩里 舊石器 遺蹟)		
“	부산진 금곡동 고분(釜山鎭 金谷洞 古墳)	釜山大學校	혼암리 주거지(欣岩里住居址)
1972~1977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선사(占東面 欣岩里先史) 집자리	서울대학교 김원룡(金元龍)	1-3
1972	암사동(岩寺洞) 집자리	한병삼(韓炳三)	
“	울주 암각화 발견조사(울주 岩刻畫 發見調査)	동국대학 황수영, 문명대(東國大學 黃壽永, 文明大)	울산의 선사시대 암각벽화(文化財 7號)
1972	서울 석촌동 원삼국시대 가옥잔구(石村洞 原三國時代 家屋殘構)	金元龍	石村洞發見 原三國時代의 가옥잔구 「考古美術」 113, 114
1973	함양 상백리 고분(咸陽 上栢里 古墳)	東亞大學校 博物館	함양 상백동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咸陽 上栢洞 古墳群 發掘調査報告)
“	서울 岩寺洞 先史遺蹟	韓炳三	
“	청주시 석고동 남석고(淸州市 石稿洞 南石稿)	청주시장(淸酒市長)	
“	북제주군 애월면 어음리 구석기시대 혈거지(北濟州郡 涯月面 於音里 舊石器時代 穴居址)	정영화(鄭永和)	
“	경주 황남동 폐고분(慶州 皇南洞 廢古墳)(계림로 공사중 노출된 것)	國立博物館	
“	慶州 忠孝洞 山 46의 石室墳	“	
“	경주 인왕동(慶州仁旺洞) 678 - 681, 752古墳	이대(梨大) 진홍섭	慶州地區 古墳發掘報告書(慶州史蹟管理事務所)
“	慶州 校洞 68 폐고분	서울대학교 김원용	경주지구 고분발굴보고서(경주사적관이사무소)
“	慶州 黃南洞 24-5 古墳	이화대학교 진홍섭	“
“	慶州 黃吾洞 320古墳	경북대학교 윤용진	“
“	慶州 黃南洞 미루왕능앞 담장 기초지역 48基 고분	영남대학교 이은창 부산대학교 김정학 고려대학교 윤세영	“ “ “

年·月·日	發掘遺蹟名	發掘者	報告書
1973	慶州 皇南洞 폐고분	정영호	
“	제천 송학리 포전리 전말동굴 (堤川 松鶴里 浦田里 전말동굴)	연세대박물관	제천 전말동굴 발굴 중간보고 (한국학연구 11)
“	경주 천마총(慶州 天馬塚)	김정기(金正基)	天馬塚(文化財管理局)
“	慶州 皇南大塚(98號)	“	경주 皇南洞 第98號 고분발굴 略報告書
“	마산 성산패총 (馬山 城山貝塚)	“	마산 외동 성산 패총발굴보고서 (馬山 外洞 城山 貝塚發掘報告書)
“	부산 조도 패총 (釜山 朝島 貝塚)	한병삼 (韓炳三)	朝島 貝塚(國立博物館 古蹟調查 報告 第9冊)
1973~1975	안동 수몰지구 유적발굴 (安東 水沒地區 遺蹟발굴)	문화재관리국 (文化財管理局)	安東 水沒地區 遺蹟發掘報告(문 화공보부(文化公報部))
1974	扶驗 松菊里 遼寧式 동검유적 (扶驗 松菊里 遼寧式 銅劍遺蹟)	이호관 김영배, 안승 주 (金永培, 安承周)	부여 송국리 요령식 동검 출토 석관묘(扶餘 松菊里 요령식 동검 出土 石棺墓)(百濟文化 7,8)
“	慶州 黃吾洞 381-6 古墳	윤용진	
“	慶州 路東洞 277-1 고분	“	
“	慶州市 皇吾洞 386-1 고분	“	
1974	미추왕릉지구(味鄒王陵地區)폐 고분(배수로 시설)	“	
“	제천 전말동굴 선사유적	연세대박물관	제천 잔말동굴 발표 중간보고9 (한국사연구 11)
“	서울 岩寺洞 선사유적	韓炳三	
“	강진 대구면 사당리 청자요지 (康津 大口面 沙堂里 청자요지)	정양모 (鄭良謨)	
“	양산 서생면 신암리 선사유적	國立博物館	
“	공주 長峻面 壯岩里 93 선사유적	연세대박물관	
“	고성군 고성읍 동외동 패총 (固城郡 固城邑 東外洞 貝塚)	동아대학 박물관	
1974~1977	양양군 강현면(降峴面) 둔전리 진전사지	정영호	
“	서울 석촌동(石村洞) 百濟古墳	김원룡 (金元龍)	잠실지구 유적발굴보고서 (蠶室地區 遺蹟發掘報告書)
1974	울산 다운동(茶雲洞) 146 古墳	부산대학박물관 (釜山大學博物館)	
“	동래북천동(東萊福泉洞) 遺蹟	“	
“	보령군 성주리 성주사지 (보령군 聖住里 聖住寺址)	황수영	
“	서울 방이동 일대 古墳	김원룡(金元龍)	잠실지구 유적 발굴보고서

年·月·日	發掘遺蹟名	發掘者	報告書
1974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선사유적(固城郡 下一面 松川里 先史遺蹟)	동아대학박물관(東亞大學博物館)	固城 松川里 솔섬 석관묘(石棺墓)(동아대학교 박물관)
“	서울 石村洞 61, 75, 119번지 古墳	金元龍	잠실지구 유적 발굴보고서
“	김제군 부량면 新用里 벽골제	윤무병	
“	경주 김유신 장군 묘역 調査	경주사적관리사무소(慶州史蹟管理事務所)	
“	慶州 안압지(雁鴨池) 준설 調査	정재중(鄭在鍾)	한국 고고학연보2, 경주 안압지 준설조사(韓國 考古學年報2, 慶州 雁鴨池 浚渫調査)
“	익산 미륵사지(益山 彌勒寺址)	원광대학(圓光大學)	益山 미륵사지 東塔址(東塔址) 및 西塔 調査報告書
1974~1977	진양군 대평면 선사유적(晉陽郡 大坪面 先史遺蹟)	金正基, 안춘배	
1974	익산 다송리 유물발견(益山 多松里 遺物發見)	발견신고	益山 多松里 靑銅 遺物 出土墓(전북 유적 조사보고 5)
“	고창 송용리 遺蹟(松龍里 遺蹟)	“	고창 송용리 옹관묘(전북 유적 조사보고)
“	부여 신리의 백제토광묘 발견	“	부여 신리의 백제사광묘(扶餘 新里의 百濟土壙墓)(考古美術 126)
1975	부여읍 쌍북리 백제 화장묘	강인구	백제의 화장묘3(백제문화 7,8)
“	부여읍 상금리(上錦里) 매봉 화장묘	“	百濟의 火葬墓3(百濟文化 7,8)
“	논산군 광석면 득윤리 폐고분 발굴조사	“	
“	서울 성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한병삼	
“	대구 북구 북현동 폐고분	이호관, 김영하	
“	경주 구황동 분황사지	東國大博物館	
1975	장성·담양·광주·대초댐 수몰지구	김원용, 최몽용, 이호관	축산강수몰지구 유적발굴조사보고(築山江水沒地區 遺蹟發掘調査報告)
“	부산 서구 괴정동 고분群	정징원(鄭澄元)	부산 괴정동 옹관묘(고고학3)(釜山 槐亭洞 甕棺墓(考古學3))
“	경주 배반동 능지탑 주변	황수영	
“	제천 송흥면 포구리(堤川 松鷹面 浦口里)	손보기	
“	칠곡 칠곡면 구암동 폐고분	김택규	구암동 고분발굴조사개보
“	김해 내동 석관묘	김정학	(鳩岩洞 古墳發掘調査概報)

年·月·日	發掘遺蹟名	發掘者	報告書
1976	구안지밭굴(鳩雁地發掘)	김동현,김정모	부여 비당리 선사분묘 고고학
“	부여 석성면 비당리 파괴분	이규산(李揆山)	扶女 碑堂里 先史墳墓(考古學 4)
“	부여 송국지 선산주거지	강인구	
“	堤川 松鶴面 浦田里	손보기	
“	金海 大東面 禮安里 파괴고분	한병삼,김정학	
“	창영 계성면 고분 (昌寧 桂城面 古墳)	정중환	창영 계성 고분군 발굴조사보고 (昌寧 桂城 古墳群 發掘調查報告)
1976~1980	慶州 皇龍寺址	文化財管理局 김정기(金正基)	
1977	淸原 加德面 蘆峴里	손보기	
“	서울 성동구 구의동 개발지역	김원용	화양동 유적발굴 조사보고 (華陽洞 遺蹟發掘 調查報告)
1977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무문토기시 대 주거지(無文土器時代 住居地)	“	
“	경주시 사정동 흥륜사지	경주고작발굴 조사단	
“	나주군 나주읍 보산리	최몽룡	나주 보산리 지석묘 발굴조사보고서 (羅州 寶山里 支石墓 發掘調查報告書)
“	광산군 대촌면 원산리 ()光山郡 大村面 院山里)	최몽룡	광주 송암동 주거지 발굴조사보고 (光州 松岩洞 住居地 發掘調查報告)
“	문경군 문경읍 상초리 建物址	신영훈	
“	경주 인왕동 폐고분	김택규	
“	영천 자양면 성곡동 지석묘	윤용진,김종철	
“	中原郡 상모면 미륵리 寺址	淸州大博物館	
“	대덕군 진잠면 내동리 선사유적(大 德郡 鎭岑面 內洞里 先史遺蹟)	윤무병	
“	부산 괴정동 패총(槐亭洞 貝塚)	김정학	
“	여천군 쌍봉면 사전리 이충무 공선소유적	신영훈	
“	宜寧郡 의령면 동동 파괴고분	김정학	
“	堤川 두리봉 동굴	손보기	
“	월성군 안강읍 흥덕왕능능 비 편발굴(興德王陵陵 碑片發掘)	정기영 (鄭基永)	
“	慶州 東方洞 窯址	한병삼,정기영	
“	전남 고흥군 도화면 내발리 사덕리 선소밭굴	최몽룡 (崔夢龍)	
“	강진 도요지 밭굴	정양모	
“	大淸 댐 소물지구 유적밭굴	윤무병	
1976~1977	전남 신안군 지도면 방축리 해저유물	文化財管理局	유물도록발간, 중간보고 (遺物圖錄發刊, 中間報告)